

2018년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JOB다

2018년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여러분의 해외 취업에 KOTRA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말

요즈음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국내 취업시장의 문이 좁아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돌려 해외취업 시장을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쿄리서치는 구인난으로 폐업한 기업수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362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인 현지채용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OTRA는 여러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제한된 국내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TRA는 전 세계 51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취업카페를 운영하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정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외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수기집에 실린 30편의 사례는 어려운 국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취업동기, 준비과정, 성공 노하우, 입사 후 부딪치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 적응노력 등이 진솔하고도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다.

일본, 북미, 중국,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해외취업 경험 담이 그동안 해외 취업에 막막함을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무대에서 꽃을 피운 이 청년들처럼 여러분도 더 넓은 세상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KOTRA가 늘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모든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선석기**



CONTENTS

일본



도쿄	김주형 과포화 상태의 국내 취업시장이 아닌,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세요	009
오사카	유경은 기나긴 준비 끝에 열린 문	018
	전준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	026
후쿠오카	손영주 생각이 중요하다	032
	조익현 일본, 그리고 하우스텐보스에서 일한다는 것	038

중국



베이징	김성은 중국, 기회의 땅이 되다	047
선양	김보름 해외 취업,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051

동남아 대양주



시드니	정영택 뜻밖의 기회, 꿈을 펼칠 발판이 되다	061
싱가포르	김대현 성장하고 싶은 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자!	065
	양희은 상해 브랜드 매니저에서 싱가포르 로펌 마케터가 되기까지	070
자카르타	김민정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배우다	077
	김유나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온다	082
쿠알라룸푸르	권혁준 해외 취업, 기회를 통해 꿈을 알아가는 과정	089
하노이	채예진 베트남 유학생에서 현지 취업까지	096
호치민	김현영 해외 취업, 어디까지 생각 해봤니?	101
	황준상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보인다	112
뉴델리	조윤경 내가 원하는 미래, 스스로 개척 한다	118



2018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북미



뉴욕	김나래 강원도 인제에서 뉴욕에 오기까지	125
	이은영 뉴욕에서 한국인 유학생으로 살아남기	133
로스앤젤레스	김지인 미국 패션의 중심 자바시장에서	144
	윤현수 기회의 땅 미국, 그곳에서 답을 찾다	149
밴쿠버	박서연 내게는 늘 꿈꾸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	161
	유은미 5개월간의 고생 끝에 얻은 일자리	173
	전진민 '현실' 안에서 '이상'을 쓰는 세계여행자	179

유럽



프랑크푸르트	홍민철 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안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	191
--------	---------------------------------------	-----

중동



두바이	박현성 해외 취업을 향해 내딛던 소중한 한걸음	203
	여유진 중동에서 찾은 오아시스	212
카타르	구재훈 JOB보단 커리어!!!	225

중남미



멕시코시티	박노현 중남미 여행자, 멕시코 헤드헌터가 되다!	233
상파울루	이유진 어디서든 기회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	242



Japan



일본



도쿄 김주형 | 도쿄 일렉트론 009

오사카 유경은 | 주식회사 인텔림 018

전준우 | 그린시스템 026

후쿠오카 손영주 | 일본정보 크리에이트・日本情報クリエイト株式会社 032

조익현 | 하우스텐보스 038



JAPAN



김주형

도쿄 일렉트론

01

과포화 상태의 국내 취업시장이 아닌,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세요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지금이야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일본으로 취업하려 했던 계기는 단순히 언어와 괜찮은 스펙이 있으면 국내 취업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년을 보장해 주고, 술자리를 강요하지 않는 기업 문화, 그리고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꿈만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고, 그에 맞춰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TOEFL 성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결국 졸업 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문은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원은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앞에 다가온 취업이라는 현실에서 제가 가진 것은 3점 후반대의 학점과 취미로 공부했던 JLPT 1급, 80점에 조금 못 미

치는 TOEFL 성적, 부랴부랴 준비했던 700점 후반대의 TOEIC 성적이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 열정뿐이었던 저에게 남들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해외 취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인재보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채용한다.”라는 일본 기업의 채용 조건은 이런 저에게 있어서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국내 취업과 더불어 일본 취업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주로 인터넷과 박람회에서 정보를 모았고, 참가할 수 있는 박람회는 전부 참가했습니다. 또, ‘떨어져도 경험, 붙어도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기업은 중소 기업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작성했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는 내정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기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보조금은 지급되는지, 상여금은 얼마나 되는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는지, 미래가 있는 회사인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회사에서 맡을 수 있는지 등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쿄 일렉트론’에 내정을 받아 입사했고, 현재 야마나시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팁 등의 정보를 살펴보고, 월드잡플러스 등의 해외 취업 정보가 올라오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또, 마이나비코리아, 파소나, 워크인재팬 등의 리크루트 회사에서 주최하는 박람

회 참석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은 ‘KOTRA 카페’입니다. 이전 구직자들이 올린 질문과 답, 해외 취업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멘토가 있어서 질의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정보가 빠르게 업로드 됩니다. 또, 박람회가 끝나면 구직자들이 서로 면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담은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내 취업을 준비하며 작성했던 이력서를 해외 기업 지원에도 사용했는데, 공대를 졸업했고, 전공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에서 이력서 첨삭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 일본 면접관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어로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나 사용하지 않은 표현은 다니고 있던 일본어 회화 학원의 원어민 선생님께 첨삭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면접 준비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 면접 준비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많이 보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면접관들이 좋아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면접에서 준비했던 말을 전부 하지 못했었지만, 면접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했던 말뿐 아니라 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말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취업 성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팁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시 지켜야 할 복장과 예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당

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라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경우 이력서를 잘 작성하면 다른 서류는 거의 통과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때, ‘지나치게 솔직한 대답을 피하고,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드러내며, 일본어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면접을 볼 때마다 “왜 일본까지 와서 일하려고 하는가?”, “언제까지 일본에서 일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얼마나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일본 취업이 국내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구직자는 없겠지요. 그리고 지원자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신제 고용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일본은 더욱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본 기업에 지원했는지 굳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상 질문에 대해 최소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만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직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수행한 졸업 과제와 프로젝트가 얼마나 그 기업의 직무에 부합되는지, 직무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졌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전 졸업 당시 졸업 과제로 ‘제어 시스템 설계’를 했었고,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면접 볼 당시, 앞으로 인공지능을 제품에 탑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 기업 조사를 할 때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면접 때 제가 가

진 강점을 잘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저의 전문성이 부합하여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합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본어로 말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했지만, 면접 볼 당시 제 일본어 스피킹 실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작성하여 첨삭을 받은 것을 외웠습니다만, 실제 면접에서는 외웠던 것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키워드와 흐름을 외우고, 문법상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더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반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면접관들도 외국인이라는 것과 유학 경험이 없으면 일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일할 때 주로 일본어를 사용할 텐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면접관들의 의구심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면 이를 높게 평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 통역사를 면접에 동석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말하다가 정말 막히는 부분만 통역사의 힘을 빌리고 나머지는 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어와 영어로 수준급의 회화를 하게 되는 것이 최고겠지요.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입사 후 얼마간은 해외 체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국어로 적혀 있는 거라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잡무도 언어 때문에 시간이 바로 더 걸렸고, 쇼핑부터 통장, 휴대전화 개설하는 일까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주거 문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로 해결되었고, 통장과 휴대전화 개설도 회사 인

사 담당자가 시간을 내어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저처럼 일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처리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선배들은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잘 지내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문제를 모두 공유합니다. 무리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면 개인적으로 업무 능력도 향상될 뿐 아니라 주위의 평판도 좋아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지어로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모국어를 사용한다 해도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은 물론, 놓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궁금한 것은 계속 물어보세요. 신입의 특권이라면 입사 후 1년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회사 선배나 윗분들이 이해해 주는 것 아닐까요. 또,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휴대전화를 만진다던가,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한다던가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반도체 장비의 프로세스 모듈(Process Module)의 하드(Hard)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배치된 부서는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전공 지식은 구조역학이며, 이후에는 플라스마와 프로세스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미팅 후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 후 설계한 부품이 제작되면 테스트기를 개조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지 평가를 진행합니다. 업무 중간중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대응을 합니다. 아직 신입사원이라서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고 있지만, 더욱 나은 장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근 후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해서 추후 인공지능이 탑재된 장치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입사하여 현지 생활을 할수록 외로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가 있는 곳이 시골이어서 주변에 같이 놀 수 있는 젊은 친구들도 없었고, 만약 있었더라도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은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는 것’이 친구 만들기의 첫 단계인데 주변 정보가 전혀 없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해졌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적응을 위해 경험을 살려 주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있는 곳의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나 가족을 위한 것들뿐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품고 몇몇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또래 친구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주변에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 큰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대학교도 있고 땅도 넓어서 그 주위에서 찾아보면 뭐라도 나올 것 같다고 짐작

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에서 전철역까지 30분이 걸리고, 한 시간에 두 번 오는 전철을 타고 30분은 이동해야만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업무로 지치고, 주말에는 푹 쉬고 싶었기 때문에 혼자들과 친해지려던 노력은 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관계 범위가 회사 사람들로 한정됐고, 회사 내에서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선 이상은 친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인연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맞선임을 포함해서 같은 부서 사람들, 장치와 관련 있는 다른 직무의 사람들, 같이 입사한 동기 중 자주 마주치는 친구들을 소중히 하면,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와 제 맞선임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해외 취업은 어떤 광고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취업 시장에서 도전하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광고에 현혹되어서 해외 취업이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채용 내정을 받은 후 입사 전까지의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되도록 2,3월에는 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는 해외 취업 장려금 때문입니다. 취업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보험료인데, 아르바이트하여 연말 정산에 보험료가 포함되면 해외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면,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는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ips for Success



- 면접 시 지나치게 솔직한 대답은 하지 말 것
-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문성’임을 기억할 것
- 부족하더라도 면접에서 현지 언어로 말할 것
- 꾸준히 스스로를 홍보(PR)할 것

유경은

주식회사 인텔림

02

기나긴 준비 끝에 열린 문



해외 취업 도전 계기

2015년 여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저에게 석사 과정을 하던 대학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 되니 그쪽 취업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마이나비코리아에서 진행하던 'Career in Japan'이라는 일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좌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이것도 기회가 될 테니 한 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당장 일본어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 취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취업박람회가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그때 즈음에 우연히 정보를 얻어서 시작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관련 전공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서 일본의 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친해진 일본인 친구들과 서로 익숙하지 않은 영어보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하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살려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꾸린다는 건 취업 준비 초기의 제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늦어졌다는 조바심에 불안한 마음밖에 없었고, 심지어 한국의 고용 시장은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장소를 한정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국에 존재할 수도 있는 나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일본 기업 취업을 위한 첫 도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취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저는 더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죄송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면서 취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실패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일하며 틈틈이 준비했던 일본 취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능력이지만,

당시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남에게 보여주는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생략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국어인 한국어는 그나마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첨삭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본어는 스스로 준비하면서 첨삭까지 하기엔 저 자신의 한계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채용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에 집중하기로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6년 여름 즈음에 포털사이트의 KOTRA 카페에서 모집하는 일본 취업 스터디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운이 좋게도, 관련 학과 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신 스터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에 대한 첨삭을 받으며 일본 기업 면접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 및 말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구사해왔던 저의 일본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어 실력을 이 스터디를 통해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칼럼 및 기사로 일상생활 단계가 아닌, 보다 상위 레벨의 일본어 고급 어휘를 공부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 저의 자세와 일본어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스터디에 참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취업 준비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서 ‘아무 곳이나 붙으면 그만’이라는 생



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상상을 하며 커리어에 대해 고민해보니 ‘최소한 이것만큼은 고려하자’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계일 것, 둘째로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우대하는 직무일 것, 마지막으로 복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경력을 쌓는 것은 어떠한지 등 이 세 가지는 제가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고려했던 항목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은 곳이더라도 계속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상상되지 않는 직무의 경우에는 경험 삼아 면접은 보되, 결과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여 상담하여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절박할수록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조언을 받게 되었고, 심적으로 괴로운 이 순간조차 나중에는 복기할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까지도 여러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실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여러 번 참가하고, 다른 국가도 고려하게 되면서 영문 이력서를 보완하기 위해 K-move 특강에도 참가하는 등 취업을 위한 노력은 일본 취업 스터디에 참가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하반기, KOTRA 취업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공고를 올리기 시작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공고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마침 한국에서 실시하는 인턴십과 시기가 맞아 KOTRA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인턴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도쿄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는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참가한 때가 제가 구직하던 기간과 맞아떨어졌고,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흥미를 보인 것이 회사 측에 크게 어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저와 회사가 딱 맞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언제라고 알려줄 수도, 기업 분석으로는 알 수도 없는 범위의 일이므로 저는 취업에 있어서 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현지까지 가도 쉽게 되지 않던 일이 꾸준히 참가하던 KOTRA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KOTRA는 정말 감사한 존재입니다.

취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정보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니, 동아시아권 전체적으로 비슷한 연령대에 대학을 가고 취업하여 결혼한 다음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편적인 인생의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거기에 얹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었지 취업 준비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해외 취업에 도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 대기업보다 신입 초봉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듯 많이 다른 것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 및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이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므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입사 후 무엇보다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현지인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남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면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제가 취업한 일본은 같은 동아시권인 데다가 국민 특성상 자신에 대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나라여서인지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는 편이 쉬울 정도였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Data Management)입니다. 업무가 개인적으로 저와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연봉 수준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일본의 사회초년생 평균임금을 알아보면 관련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리는 업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도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업무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력에 있어서도 저의 지금 마음가짐만 변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 배치도 운이 좋은 편이어서 여러모로 배울 점 많은 일본인 선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한 · 일간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때는 있지만,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

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상대 동료나 선배들이 이해를 돋기 위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 또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제가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 저는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기도 하므로 모르는 부분은 바로 질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업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나 상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모든 회사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잘 지키면, 어디서든 잘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아직도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본의 느린 행정 처리입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다른 수속이 필요할 때 당일에 끝나는 업무도 물론 있으나 그마저도 기본적으로 1~2시간은 소요되어서 인내심을 꽤 필요로 합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 행정 시스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유학 비자, 저와 같은 취업 비자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많은 한국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음을 비우기로 했더니 편해졌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행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도 생겼습니다.

비단 일본 취업뿐만 아니라 모국이 아닌 해외에 삶의 터전을 꾸리려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도 있듯이, 정착할 나라의 시스템이 모국보다 아무리 선진적이지 못하고 답답할지라도 적응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



습니다. 대신, 관련 행정 업무나 기타 수속이 필요해질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미리 현지어와 한국어로 여러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현지 거주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인터넷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생활하는 국가의 현지어로도 검색하면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세상에서 누구든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속도가 각자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누구든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비해 일본 취업 시장이 호황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일본 취업이 누구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를 뒷받침해 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쉽게 도전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Tips for Success

- 첫 취업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

전준우

그린시스템

0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작년 말까지, 저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남성’, ‘나이 30세’. 직업은 일본어 번역 아르바이트, 한국어 전공. 살릴 전공도 스펙도, 그 흔한 수상경력조차도 없는 백지 이력서의 30대 초반 남성에게 장밋빛 미래는 없었습니다. 수입이라고는 매달 아르바이트로 받는 60여만 원. 하루하루 먹고살 수도 없어 부모님께 손을 벌리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두근거리며 프로그램 강의실에 나가, 강의를 들을 때 문득 옆 사람이 말을 건네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34세로 저보다도 더 늦었는데도,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흥미가 있나요?”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 일본어, 어릴 때부터 선망하던 프로그래머,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면 일본에서 프로그래머로 취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희망이 생겼고, 그때부터 무언가에 훌린 듯 반년 간 K-move와 함께 달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K-move와 함께 한 반년은, 그전까지 훌려보냈던 30년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무작정 선택한 일본 취업이었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도움이 된 것이 월드잡플러스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담, 설명회 참석, 면접회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다고, 처음에는 KOTRA에서 소개받은 면접장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했는지도 모르고 쓸려가다 불합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나이 30세’라는 꼬리표에 짓눌려 ‘면접관이 그걸 꼬투리 잡지는 않을까?’, ‘처음부터 불합격 확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았지만, 대다수 기업의 면접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똑바로, 면접자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쓰는 이력서에 있는 성대한 자기 자랑도, 스펙자랑도, 무계획적인 열정도, 겉핥기식으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봐온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면접자 개인과 동등한 높이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챘을 때, 틈이 없이 막혔다고 생각하던 벽은 너무나도 낮은 문턱이라는 것을 처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두려움이 가공의 벽을 세우고, 기회를 내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둘 다

두려워해선 면접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웃으며, 먼저 손을 내밀며 다가간다면 의외로 쉽게 길은 열립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별 볼 일 없더라도, 자랑할 게 없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을 보이세요. 자신이 모르고 있더라도, 면접관은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므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같이 합격한 동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친해져서 물어보니, “다른 건 몰라도 형은 면접장에서 한 행동 때문에 죽어도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 온 건지 당황했어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울 KOTRA 본사에서 적성시험 겸 2차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길을 잃어 면접 시작 직전에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갔습니다. 적성시험 중간에 느긋하게 뒤에 놓여있는 간식과 물도 몇 번이나 왕복하며 쟁겨 먹고, 시험시간 반도 안 지났는데 다 풀었으니 나가면 안 되냐는 빌언도 했으며, 2차 면접에서 “취직하면 일본에서 오래 살 생각인 데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라 프로그래머가 되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는 어린아이 같은 대답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면접 이후 기업에서 입사 의향에 관한 메일을 한 달 동안 4번이나 보냈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린시스템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회사에 오겠냐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황당 무계한 인간성이 회사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면접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보는 것은 지금 얼마나 스펙이 뛰어나고, 지금 당장 유용해 보이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같이 일해도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왜 그렇게 러브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뢰에는 신뢰로 보답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이면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 꼭 맞는 기업이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내가 먼저 거부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으면, 외국인에 대한 헛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도 처음이라 어색하고, 문화가 달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엇갈림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국적도 문화도 다르지만, 상대도 나도 처음 보는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적대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자세만 보인다면, 일 처리가 서툴더라도 도와주려고 하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서툴더라도 노력한다면, 노력하는 점은 분명하게 평가받습니다.

저는 지금 모 대기업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구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엔지니어가 들어갈 환경이 아닌데도, 회사는 저의 노력과 성장 잠재력을 믿으며 일을 맡겨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이라고 너무 무섭게 보거나 주



위를 경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밝게, 당당하게 노력한다면 주위는 모두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일본에서 제일 고생했던 것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물어봤다가는 괜히 방해한다고 핀잔을 들을 듯해 무서워서 물어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설픈 일 처리 후에나, 위험 수위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핀잔을 들을 것 같고, 물어봐도 핀잔을 들을 것 같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1을 말하면 5까진 눈치껏 해라”라는 말에 적응하기 어렵긴 하지만, 해결책은 찾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냥 질문하면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초보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모르는 건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기억하고 살릴 수 있다면, 질문은 결코マイ너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의 플러스를 위한 발판이자 자신의 평기를 올려주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으면 솔직하게 물으십시오. 당당하게 어디까진 알겠고, 어디까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는 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해외 취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시작 전에도, 후에도,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는지, 얼마나 상대를 믿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가 해외 취업의 최대 난관이자 반드시 다가가 봄야 하는 문턱입니다. 물론, 다가가 보면 예상외로 엄청 낮으므로,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길 권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넓고 선택지는 많습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이 불합격이었던 이유는 못나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희망 사향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과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Tips for Success



- 알팍한 거짓은 금방 들통 난다. 자신을 믿고 당당해져라
- 면접관은 적이 아니다. 같이 자신을 관찰하는 아군이다
- 솔직하되, 가볍지 말라. 진지하게 자신을 보여라

손영주

일본정보 크리에이트

日本情報クリエイト株式会社

04

생각이 중요하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2017년, 대학에서 진행했던 K-move 사업(한국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일본 취업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시작하며 해외 취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어는 교양과목 정도로 하라가나, 가타카나를 겨우 배운 정도였죠. 기초 문법은커녕 기초 한자조차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함께 준비했던 학생 중 어린 시절 한자를 공부했던 학생을 보며 일찍 준비하지 못한 저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일본어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일본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K-move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면접과 취업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쯤, 함께 일본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웬지 모를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갈등과는 상관없이, 저는 배우면 배울 수록 일본어라는 타국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해지는 저를 보며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2017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진행된 현장 면접에 합격하고, 올해 5월, 일본정보 크리에이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취업박람회에는 여러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여 구직자라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현장 면접이나 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죠. 지금 회사의 면접도 저보다 먼저 면접을 본 후배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면접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고, 저를 배려해주시는 면접관(현재 회사의 인사과장님)으로부터 지금 회사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해외 취업 준비는 대학에서 외부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시행한 K-move 커리큘럼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4시간의 일본어와 4시간의 IT 관련 수업이었는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취업 준비 이전부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일본어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K-move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와 인재개발원 측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 관련 행사정보, 필요한 능력과 그에 맞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맞춰 막연하기만 했던 해외 취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는 기본적인 이력 사항보다 그동안 제가 해 온 개발 경험을 담은 포트폴리오와 개발능력을 어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일본에 와서 시행한

최종 면접에서는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의 시연 영상을 준비해 제가 가진 능력을 어필하였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제가 처음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꿈꾼 것은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에 일본은 IT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고, 또한 개발자의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어 실력을 갖추면 일본에서 꿈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본어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고, 일본어 수업 후에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개발자의 자질을 쌓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또,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 적용해 보곤 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어 실력은 매우 초급 단계였기 때문에 K-move 프로그램으로 기초문법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일본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자 J-Pop을 듣고, 가사를 번역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평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데다, 노래 가사는 기억에 잘 남아서인지 음악을 들으며 일본어를 공부한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듣기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의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해외 취업은 과정은 쉽지 않고, 스스로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날씨가 쌀쌀해지고 학기가 끝나면 졸업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일본어로 말할 기회를 만들어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자는 생각에 일본어 학원 회화 수업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것도 모자라면 학교 주변의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점장님과 일본어로 대화하며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더욱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입사 후 처음 3개월간은 대부분 연수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기 이전에 일본의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지식, 매너와 대화법, 복장과 같은 기본예절 등 하나부터 열까지 직장인이 갖춰야 할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본은 직장생활을 할 때, 외적인 부분에서도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규정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아마도 일본에 살기 시작한 이상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연수가 끝난 후 제가 맡은 업무는 원도우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개선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한국인은 저를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제 생각보다 많지 않아 조금 걱정했지만, 사내 분위기상 제가 불

편해하는 부분에는 배려해주고, 저 역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숙해지다 보니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저는 취업 준비 이전에는 한 번도 일본에 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어서 최종 면접을 보러 일본에 오기 위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밟아 본 외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고, 게다가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미야자키현은 한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에 있는 한국인 선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나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곳 주민으로 최대한 동화되어 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와서 '방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휴대전화는 어떻게 만들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필수적인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하므로 '무엇이든 확실히 하자'는 마음으로 계약서 하나하나 어떻게든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업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저는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작업상



황을 보고해야 하며, 상사의 조언을 받고 이를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정착해야 하는지를 제가 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해 익숙해진 후, 회사의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고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좋은 가게를 소개받아 가보기도 합니다. 즐겁게 생활해야 이곳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은 준비과정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하면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해외에 가고 싶은가?'라는 질문보다는 해외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야 할 동기가 될 것입니다.

Tips for Success



-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자
-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자신의 능력 확장으로 생각하자
- (IT 전공자라면) 자신의 기술을 실현해 볼 기회를 얻자

조 익현

하우스텐보스

05

일본, 그리고 하우스텐보스에서 일한다는 것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2015년 가을 학기부터 규슈에 있는 사가대학(佐賀大学)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이었던 1년간의 일본 생활은 몹시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해외 취업을 꿈꿨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에게는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 취업 가능성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일본 취업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테마파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하우스텐보스가 참가한 것을 알고는 면접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실시한 하우스텐보스 면접에서는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희망이었던 테마파크 업계 취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력서를 새로 고쳐 쓰고 부산까지 내려가 면접을 봤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하우스텐보스를 지원할 때, 제가 가진 언어적 강점은 영어를 한다는 것뿐, 일본어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을 생활 했지만, 그 시기 외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은 탓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본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면접에서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면접에 필요한 문장 표현을 시간을 들여 연습하며 몇 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만난 다양한 구직자 중에는 한 군데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만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면접에서 바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차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SPI(일본판 인적성 시험)의 벽에 막히거나, 문제를 잘 풀었는데 최종면접에서 긴장을 심하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취업도 대학입시 때 희망 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1,2,3군으로 기업을 나누고, 각 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설명회, 정보, 시험, 면접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과 시험 하나하나가 쌓여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곧 채용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곧 실력이 되는 것이죠.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그동안 제가 취업에 도전한 경험을 돌아보면, 기업에 따라서 면접이 총 2 단계로 끝나는 때도 있었고, 화상 면접을 포함해 4회 이상인 곳도 있었습

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총 3회 면접을 했고, 최종면접은 나가사키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 면접에서는 형편없는 실력으로 떨어졌지만, 긴장을 점점 줄여나가 면접에 익숙해지면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을 모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자마다 가진 강점이 다르고,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 다르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도록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면접에서 잘 이야기한다면 성공적인 면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면접 주제가 ‘도전정신’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했고, 그 결과 일본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경험을 살려 일본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논지를 펴서 도전정신을 요구하는 기업의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정작 일본 학생에게는 도전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전정신에 대한 답변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과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취직이 결정됐을 때, 저는 영어와 한국어



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채용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현장에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배치받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저를 외국인 아닌, 일본인과 동등한 사원으로 채용했고, 그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하는 곳이 일본 기업이라면 대부분 일본어를 쓰며 일해야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들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언어의 장벽을 하나 더 두고 일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 입사 초기에 (테마파크)시설로 발령이 나서 3개 월간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서 이동을 하여 사업개발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작 외국어는 하나도 쓸 일이 없고, 어려운 일본어 서류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인보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몇 배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만 본다면 한국의 대기업보다 좋은 조건의 일본 기업을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한국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일본의 대졸 초봉이 한국보다 더 낮은 점에 대해 매우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겠죠. 해외 생활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고, 즐겁다면 빠른 성장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취업의 매력 아닐까요.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해외에서 생활하면 흔히 '향수병'을 걱정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향수병이 심하지 않았지만, 면접에서 생각했던 것과 회사에서 실제 하는 업무 간의 괴리가 커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결국 본인의 능력과 그것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취업에 성공하고, 일하고 있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해외 취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입사 후 본인의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회사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불안감이 없어졌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일본 기업에 취업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펙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갈고닦은 실력이라면 일본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실력일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토익점수 890점이 평범한 수준이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에 속한다는 것을 취업 준비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스펙 걱정보다는 실질적인 면접이나 SPI를 준비하는 것이 더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한 분들, 일본에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본에서의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일본어' 또는 자신이 있는 나라의 언어라는 하나의 벽을 넘어가며 일해야 하는 외국 생활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것, 사무직에서 일하는 것은 상반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험과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해외 취업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곳을 여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해외 또는 일본에서의 취업이 정말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ips for Success

- 경험이 곧 실력, 가능한 많은 면접에 임하기!





중국



베이징

김성은 | 바이트댄스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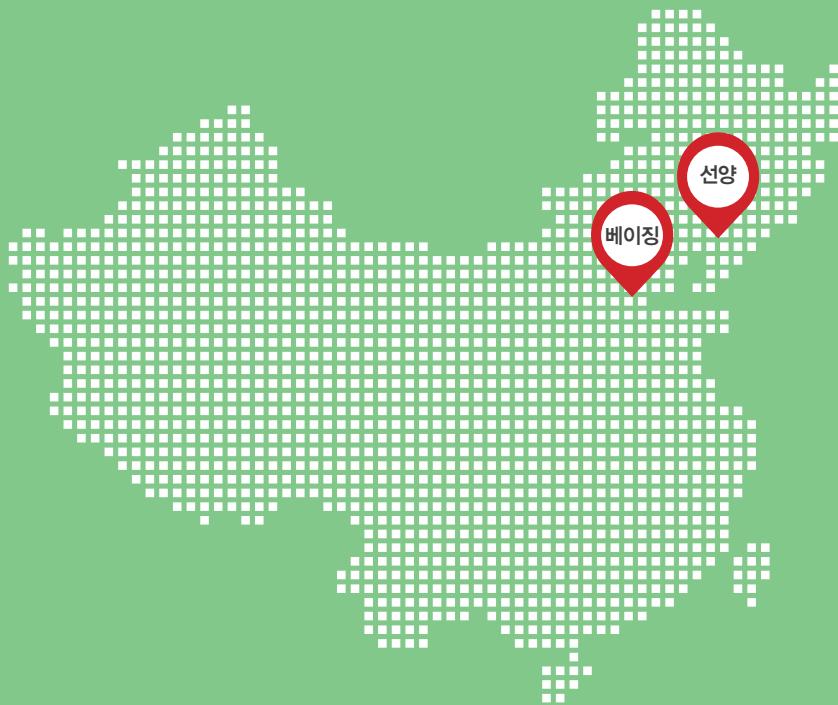
선양

김보름 | BMW Brilliance Automotive

051



CHINA





김성은

바이트댄스

01

중국, 기회의 땅이 되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고등학교 시절, 중국어를 처음 접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독학으로 HSK를 준비했고, 한 달 만에 4급을 취득했습니다. 더 큰 세상, 중국통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중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생활에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단어는 너무 많았고, 말은 너무 빨랐으며,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는 무용지 물이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포기하고 돌아갈까도 많이 고민했죠. 한 달만 참아 보자는 생각, 어쩌면 그 끈기 덕분에 대학,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나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노력한 시간에 비례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 중국어로 된 글 한 페이지를 읽는 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트에 한가득 모르는 단어를 빼곡히 정리했고, 괜찮은 문장은 통으로 외웠습니다. 아침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단어를 암기했고, 잠들기 전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 달'은 마법의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인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한 달을 견딜힘이 있다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제 어릴 적 꿈은 국제 기자였습니다.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 대학 시절 통신사와 방송국 인턴을 통해 기자라는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선택한 것은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장, 변화가 빠른 중국 시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찾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한국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고,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무작정 해외



취업 합격 수기를 찾아봤습니다. 쓰리엔 채용(智聯招聘) 사이트를 통해 중국 관련 기업을 정리하고, 취업비자 관련 법안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중국 기업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에 지원할 때는 중문·영문 이력서를 같이 보내는데, 국문 이력서와 다르게 이력서 양식에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 입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총 4곳의 중국 기업에 지원해, 모두 3번의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력이 없는 학사 졸업자도 ‘특별 신청’을 통과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을 위해 취업비자를 해주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원한 기업 중 최종적으로 취업비자와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국 바이트댄스를 선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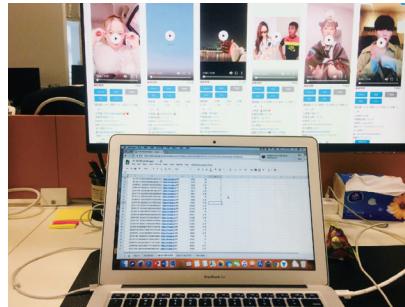
해외 취업은 다양한 정보, 준비된 면접, 그리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현재 바이트댄스 더우인(Tiktok)에서 콘텐츠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한국에 질 높은 콘텐츠 배급을 위한 시장과 이용자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면 한국 취업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기회가 많습니다. 부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각국의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둘째, 기업문화가 자유롭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상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저는 중국 취업을 유학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폭넓게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더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Tips for Success

- 해외 취업은 '정보+면접+비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김보름

BMW Brilliance
Automotive

02

해외 취업,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제가 해외 취업,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서 직접 중국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막연히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현지에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겪은 중국은 변화와 성장이 빠른 나라였습니다. 그런 변화와 성장 속에서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했고, 자연스레 많은 채용의 기회가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국의 현지화를 위해 '중국인'만 뽑지 않습니다. 인종, 국적, 나이,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세계화를 꿈꿉니다. 독일의 BMW

또한 중국 화천그룹과 합작하여 BMW Brilliance Automotive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선양에 대규모 공장도 세웠고, 저는 이곳에서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중국은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비자 문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첫 인턴 생활을 비자 연장이 어렵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성장을 체감한 저는 중국 취업 시장에 재도전을 결심하였고,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는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그 기업이 현지에 어떻게 진출했고, 왜 이런 구인 공고를 내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 정보들은 중국 현지로 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중국 선양으로 떠났습니다.

선양에서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KOTRA 선양무역관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OTRA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는지 알 수 있었고, 특히 경영악화로 국내로 복귀하는 현지 한국 진출 기업들 대비, BMW의 중국 사업 확장 소식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후, 저는 제일 먼저 이력서를 고쳤습니다. 중국에 연고가 없는



한국인 지원자의 이력서는 분명 그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낼 것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학 점수를 과감히 삭제하고, 중국에 관한 모든 경험을 적어 왜 중국에 왔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지원자의 이력서'로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저의 이력서는 면접관들에게 많은 물음표를 품게 했고, 면접장에서 '?'를 '!'로 만드는 알찬 답변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인재는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는 비(非)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어학연수, 인턴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중국의 시장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BMW 주재원 관리 부서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원인은 저의 강점이 돋보이는 이력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력서에는 HSK 점수 대신 제가 겪은 모든 중국을 써내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면접의 기회를 얻었고, 한 시간가량 중국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또, 지원한 회사에서 저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단시간 내에 많이 늘었던 중국어는 저의 학습능력과 중국에 대한 열린 마음도 같이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과 비교하여 언어적으로 단점이 될 뻔한 '한국인'을 '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이라는 장점으로 승화시켜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제가 갖고 있던 장점이 부합하여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제가 일하고 있는 BMW Brilliance Automotive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인만큼 모든 업무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중국어 실력과 더불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어공부에도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 수업을 수강하며 마치 수험생이 된 기분으로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암기하고, 공부한 것들을 매일매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인이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외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발전할 가능성과 기회를 얻기가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BMW Brilliance Automotive는 기존에 설립한 공장 이외에, 선양에 또 다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직원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인사부에서 다루는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항상 제가 중국에 취업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현지 조건과 부서 내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국적은 다르지만 다른 직원들과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은 타협해 가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중국에서 생활하던 초창기에는 한국인의 기준으로 이해 안 되는 중국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배척만 했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문 열고 용변을 보는 사람들,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에 눈살을 찌푸렸고, 그런 마음이 커지면서 점점 중국인과 교류하기 싫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서 중국이 더 이상 반짝 거리는 곳이 되지 않아 귀국까지 고민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의외로 쉽게 찾았습니다. 중국의 가능성만을 보고 중국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만 생각했지, 그들의 문화, 생활방식 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에 거주하면서 문화, 생활습관 등의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도 중국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중국을 겪어나가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자 그전엔 단점만 보이던 중국에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그래도 문화시민으로 바뀌고자 노력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그 안에 중국인만이 가진 배울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바로 귀국했더라면 크게 후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어떻게 해외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스스로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낼 자신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 또한 중국에서 생활하며 정치, 제도, 문화 등 '다름'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거나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깨달았고, 해외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KOTRA를 포함한 많은 기관이 해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예전에 비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하는 과정은 자신의 뜻입니다. 어려운 만큼 그것을 극복했을 때 성장하는 폭도 크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인한 배척, 비난보다는 ‘이것 또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해외 취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Tips for Success



- 자신의 경쟁력 파악하기
- 강점이 돋보이는 이력서 작성
-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열린 생각과 노력



South East Asia Oceania



동남아 대양주



시드니	정영택 KAFFA GROUP PTY LTD	061
싱가포르	김대현 효성 싱가포르 법인	065
	양희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070
자카르타	김민정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077
	김유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니 지사	082
쿠알라룸푸르	권혁준 LG 말레이시아	089
하노이	채예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096
호치민	김현영 CJ푸드빌 베트남 법인	101
	황준상 GS건설 호치민 법인(GSND)	112
뉴델리	조윤경 Start-Lite Service	118



SOUTHEAST ASIA OCEANIA





정영택

KAFFA GROUP
PTY LTD

01

뜻밖의 기회,
꿈을 펼칠 발판이 되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시드니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3년제의 경우) 2년 동안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호주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한국에 가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호주에서 3년간 대학 생활만 하고 돌아가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한국에 가서 무작정 취업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호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실 호주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일하면서 경험도 하고 돈도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하고 보니 호주는 최저임금이 높은 대신 그만큼 세금과 물가가 높았던 것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왕 호주에 머물기로 한 것이니 한국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 많이

해보자. 내가 언제 해외에서 일해 보겠나’라는 생각으로 호주에서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호주에서 대학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 비자 신청을 하며 기다리던 중, 호주 KOTRA 시드니 페이스북을 통해 KOTRA ‘시드니 취업박람회’ 행사준비를 도와줄 인력을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일해본 경험은 물론, 면접을 본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이었지만, 지원만이라도 해보고 혹시 면접을 보게 된다면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부모님께 합격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저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에 오시는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마냥 좋아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던 부모님의 반응이 저의 생각과 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고민이 되었지만, 부모님과는 나중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우선 저에게 온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KOTRA 시드니무역관에서 한 달 동안 취업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호주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 1일, 대양주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취업이 되길 희망하며 지원한 기업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박람회를 준비하며 쌓은 실무경험을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기업 면접관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다른 이력들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짧



게나마 박람회를 준비했던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 본 곳 중 한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저는 스스로 ‘국내외 어디서도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없는데 회사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며 많이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물론 3년간의 유학 생활 동안 학교에서 그룹 과제를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며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와 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더욱 유창한 영어를 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 회사에 지원할 때 행정부서를 희망했는데, 영업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행정팀 일을 배우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었는데 갑자기 영업이라니… 몹시 막막했습니다. 합격 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 하나 걱정과 고민을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KOTRA 취업박람회에서 단기간 근무자로 합격했을 때와 비슷한 갈등이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제 걱정이 앞섰던 것 이었습니다.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 주더군요.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되니 영어뿐 아니라 지례 겁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한 달. 이제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 보지 않고 겁부터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제가 누군가의 선배가 되어 조언을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짧다면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해외 취업 팁이라면 호주라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여서인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나라의 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환경, 휴가, 임금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외국인이 라고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들을 배우고 싶다면 해외에서 꼭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여러 직책을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운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로 생각합니다.



Tips for Success

- 기회가 왔을 때,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부딪쳐보자!



김 대현

효성
싱가포르 법인

02

성장하고 싶은 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자!



해외 취업 도전 계기

대학교 2학년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고기가 크려면 큰 물에 서 놀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에겐 그 순간이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키우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제가 먼저 했던 일은 큰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취업 가능성이 큰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선별기준은 ①인구, ②지하자원, ③개발도상국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므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15~64 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가려 뽑았고, 인구도 최소 1억 명 이상인 국가를 골랐습니다.

이를 위해 KOTRA 해외 시장 분석자료 및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별 분석을 했고, 지하자원 및 성장 가능성은 고려하여 동남아시아를 해외 취업 진출 타깃(Target)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성장에 성공한 나라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여지와 가능성이 큰 개발도상국이 저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해외 국가와 지역을 정한 후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는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드디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인턴으로 입사한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겨 대학을 졸업하기 전, 해외에서 사회생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대학 재학 중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 저는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싶은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네시아의 한 국



립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인도네시아 내 유망 현지 업체들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3개 사를 골라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업체들은 수시 채용을 통해 구인하던 중이어서 저는 주기적으로 각 회사의 인사팀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각인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패기 넘치게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그룹 회장님께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무작정 배낭을 메고 직접 본사로 찾아가기도 하는 열정을 보인 끝에, 결국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는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희망한 직무에 관해 KOTRA 싱가포르무역관 담당자와 면담을 했고, 이에 적합한 업체 정보를 전달받는 등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해외 직장에서 근무하면 자연스레 현지인 직원들과 교류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기업 근무 당시에 회사 생활 적응을 위해 이슬람 문화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역사와 종교 활동의 의미, 이슬람인의 율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 회사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즐거워졌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은 셀 수도 없습니다. 먹고 자는 것부터 병원, 보험, 교통, 문화 차이, 언어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외국 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아직 많이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조언할 실력도, 위치도 아니지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서, 혹은 한국에서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면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이유로 외국에 오는 분들은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 또는 회사를 옮겨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유를 냉철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해외에서 얻으려는 것이 한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한국을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일 해외에 나오더라도 회의감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성공적인 해외 생활이 될 것으로 봅니다.



Tips for Success

- 해외 취업 전, 냉철한 자기분석은 필수!
- 확고한 결심이 선다면 열정을 가지고 임할 것

양희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03

상해 브랜드 매니저에서 싱가포르 로펌 마케터가 되기까지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상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헤드쿼터(본부)에서 주니어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으로 방문한 싱가포르의 어느 오후 6시 퇴근길, 조깅복 차림으로 사무실을 나와 마리나베이샌즈 주변을 달리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 앱으로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고, 출퇴근 길 마스크를 꺼내 쓴 뒤 최대한 외부 활동을 줄이려고 택시에 올라타기 바쁘던 저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일상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싱가포르 아주를 결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연한 고용시장 덕분에 특히 경력직 이직의 기회가 많은 편이고, 다국적 기업의 헤드쿼터 및 R&D센터가 많아 외국인 고용이 활발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경력직의 산업 분야 및 직무 전환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 능력과 지금까지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며 쌓아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용하여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T,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지원한 끝에 현지 로펌에서 마케팅 및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근무하던 회사의 내부 채용을 통해서 상해 해외 취업을 한 번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외국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공채처럼 많은 양의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가 읽힐 확률과 면접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관심 있는 분야와 회사가 분명한 경우, 링크드인 및 페이스북을 통해 그 회사에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원자가 워낙 많아 인사 담당자가 실무 담당자에게 보낼 이력서를 고르기 전 단계에서 이미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기 때문에 제출한 이력서가 읽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지원보다는 내부 직원 추천을 통해 지원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기업이 내부 추천에 대한 보상 제도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계신 한국 분들은 도움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많거나 목표로 하는 회사가 분명하게 있지 않아 조금

더 많은 기회에 노출되고 싶은 경우에는 리쿠르터를 통해 지원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일본 기업 진출이 활발하여 수요가 많은 일본어 가능자 포지션의 경우 일본계 리쿠르팅 펌을 찾아가시면 다양한 직군의 여러 포지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리쿠르터가 회사를 상대로 지원자의 세일즈 담당자 역할을 해주어서 면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IT, 투자은행 그리고 로펌의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된 후에는 그 기업에 근무하는 분이나 회사 홈페이지 및 글래스도어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회사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구직자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꾸밈없이 나를 보여주고 최대한 회사나 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개인이 당장 회사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 기업 특성상, 신입보다는 경력직 이직이 훨씬 더 포지션도 많고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은 후 경력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더 수월한데, 이때 해외에 오피스가 있어 내부 이동 기회가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국가 간의 이동 기회가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



습니다. 유럽, 미주 기업의 경우 워낙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수자(Minority)의 채용이나 승진을 하나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이직할 당시, 글로벌 헤드쿼터 입장에서 저는 소수 인종인 아시아인 이자 여성이고 주니어였으므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고, 상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헤드쿼터에서 약 10개 국가에 신제품 출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이동을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택 대여 및 이사 비용과 같이 초기 정착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해외 근무를 이미 경험한 상태여서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신남방 정책 이후로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진출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지 법인에서 한국 및 일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

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이 모이는 콘퍼런스의 싱가포르 개최를 앞두고 준비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 2~4회 한국, 일본 출장을 통해 현지 로펌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님과 한국팀을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 기관 및 기업 분들과 일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대부분 회사 내부 팀들과 하는 업무가 많았다면, 지금 직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외부 고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정시 퇴근이 보장되고, 점심시간과 같이 휴식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팀원의 절반 이상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 3회 운동을 하고, 주 2회는 제 사무실 근처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식사를 합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진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또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왜 해외 취업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했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언어, 생활, 음식, 사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유학과는 다르게 해외 취업은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심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의지가 최고의 취업 성공 노하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해외에서 다니는 세 번째 직장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 이동으로 상해에서 소비재 브랜드 매니지먼트 일을



했고, 그 당시의 업무 내용과 팀원들이 정말 좋아서 회사 생활 자체에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터전이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의 생활 방식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장기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로 옮겨온 후, 두 번째로 미국계 IT 대기업에 취업해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IT 기업은 자유로울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다 보니 소통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명성 있는 회사여서 망설였지만 제가 오랜 기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두 번의 퇴사를 거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다시 구직하면서 한층 더 신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과감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옷이 명품이라 아깝고, 추위에 떠는 날들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몸에 꼭 맞는 편안한 옷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꿈꾸는 삶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행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 걸음
씩 걷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Tips for Success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볼 것. 그 답이
도전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네트워크와 리쿠르터를 활용해 이력서가 읽힐 확률과 면접
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자
-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포기해도 괜찮다. 나쁜 경험에서도
배울 것은 있고, 더 좋은 기회는 늘 있다



김민정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04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배우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인도네시아로 직장을 옮기신 부모님을 따라 이주한 뒤 쭉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년간은 일본으로 발령이 나신 아버지를 따라 학창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를 졸업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인니 대학 졸업 시기와 맞물려 인도네시아 KOTRA 무역관에서 장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력을 인정받고 정규 현지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저는 대학 재학 때부터 사기업 비즈니스 미팅, 수출상담회, 정부 부처 간 간담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통번역 경험을 쌓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KOMPAS 사(社)의 세일즈 부서에서 방학 기간인 한 달간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중공업, 물류, 금융, 풍력발전 등 30개 기업군을 가지고 있는 ‘코린도(Korindo)’ 그룹 일본지사에서 일 년간 인턴 경험을 하면서 이메일 작성법, 팩스 송·수신 등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 년 동안 인턴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단순 업무이고 업무부담이 많지 않은 직책부터 배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 취업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일본인을 주된 바이어로 삼고 있는 첨단소재 분야 기업의 설비 가동식에서 일본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하며 대외적으로 얼굴을 많이 알렸던 것이 첫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인 네트워크가 좁은 곳이므로 평소의 행실과 저에 대한 타인의 판단이 취업 여부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현지어를 남보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으므로, 단지 한국어와 영어만 잘해서는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화용 인도네시아어보다 비즈니스 회화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체육,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행사 사전 사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등 문화원 행사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 BEKRAF 등)와 주재국 주요 언론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성격상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연관된 일이 많아 겪식 있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의 보급과 홍보를 관장하는 만큼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BEKRAF)와 접촉 할 일이 많으며, 아시안게임 당시는 체육청소년부 등 기타 정부부처를 상대할 일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또한, 문화원은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있기도 하므로 항상 주재국 언론의 보도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평화 정착 혹은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었을 시, 모니터링 후 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공기업의 특성상 서면보고를 할 일이 매우 많아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기업 보고양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한국 정부 부처에서 반기별, 분기별로 업로드되는 보고자료, 정책 현황 자료 등을 다운받아 읽어보며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전 세계적인 K-pop의 인기와 한류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자세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대학교 진학 후 학우들과 어울리거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나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영향이 큰 나라이므로 현지 동료의 기도 시간을 늘 고려하거나, 함께 식사할 경우에는 돼지고기 섭취 여부를 물어보는 등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국민 성격이 한국인들보다 느긋하므로 무리하게 업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상대방을 낚달하는 것은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 업무요청을 쉽게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상대방의 문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국인으로서 거만하지 않게 행동하면 큰 시행착오 없이 인도네시아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Tips for Success

- 현지 언어 능력은 필수 요건
-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

김유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니 지사

05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온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정말 평범하게 대한민국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마친 저는 평범한 학점, 보통의 영어 실력 등 말 그대로 정말 ‘기본 스펙’만을 가진 취업준비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출한 재능이 없던 제가 치열한 국내 취업 시장을 뚫는다는 것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주변 친구들만 봐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국내로만 국한하기보다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잡아 이를 발판으로 해외 취업 시장을 노려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희망하는 선진국 대신, 채용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았던 중동이나 아시아권을 위주로 틈나는 대로 인턴십이나 국비 지원 석사 프로그램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명 ‘다르마시스와’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귀에 익었던 동남아의 싱가포르나 태국, 말레이시아도 아닌 인도네시아라



는 나라는 당시 저에게 무척이나 생소한 나라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하고 나서도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원한 학교가 있는 지역이 한국인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 아무리 검색해 봄도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막상 합격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지원했던 것은 ‘다르마시스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년 동안 한국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지어와 문화를 흡수하고 오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도로를 꽉 채운 수많은 오토바이, 노상 음식점들, 아이를 안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 처음 인도네시아에서 접한 모든 것들은 사실 문화충격이 기도 했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현지 친구들이 사는 저렴한 숙소에 살면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초반에는 영어와 보디랭귀지를 섞어가며 의사소통하던 제가 점차 짧은 인니어로, 막바지에는 그들과 농담까지 섞어가며 이야기할 정도로 인니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억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생활 자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연수 기간 동안 인니 한인 웹사이트나 각종 리쿠르팅 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무수한 한국 기업의 구인 정보를 검색하여 구직도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인맥, 경력도 없는 평범한 대졸자가 1년 미만

동안 공부한 프리토킹 실력으로 취업까지 돌파하기에는 현지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주로 구직 정보를 알아본 끝에 또 다른 정부 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프로그램 특성상 대다수가 남자를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면접에서 저의 현지 체류 경험과 인니어 구사 실력을 인정받아 한 벤더 회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첫 직장 생활을 중간관리자로서 시작한다는 부담감과 한편으로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인도네시아, 그리고 첫 직장생활. 그러나 학생으로서 접한 인도네시아와 직장인으로서 접하게 된 인도네시아는 180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간과 인건비 싸움인 봉제 업체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쓸어지는 업무 메일 처리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 대응, 시시때때로 바뀌는 현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입 통관 문제, 세관원, 이민국 대관업무까지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온갖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제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현지인들은 정작 중간 관리자로 왔지만, 업무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백지상태였던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역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서류나 공문을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직원들을 잘 ‘부리기 위해서’는 초장에 기를 잡아야 한다.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와 같은 조언을 하셨고, 저는 제 업무능력과 성향에 맞지 않는 방법을 통해 직원들을 통제하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또, 현지에서 막상 일을 해보니 타국의 세관, 세무, 이민국 규정 등 한국인의 시선에서 효율적이지 않거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첫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한국인인 나는 역시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편이 수월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첫 직장을 어설프게 그만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전환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보다 많게는 10년, 적게는 4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각각 맡은 업무에서는 고참 선배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능력도 없이 오만하게 관리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권위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동등한 직장 동료로서 대하면서, 업무에 있어 모르는 내용은 직원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튀어나오는 새로운 단어는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실전 비즈니스 언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봉제업의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모르는 내용은 밤을 새워서라도 앞뒤 업무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을 지내고 나니 회사의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파악되고, 의사소통도 거의 막힘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능력이 향상되니 현지 직원들의 특성, 장단점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미 억지를 쓰지 않고도 제가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또한 저를 관리자로 인정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첫 직장에서 보낸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 증명했던 끈기와 업무 경험, 언어 능력을 살려 저는 이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저의 역량을 이직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또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 안에서 그동안의 제 업무 패턴을 돌아보고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직을 결심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현재 저는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LRT(경전철) 건설 운영을 통한 인프라 개발에 한 역할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단 대표지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통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철도청과 진행되는 회의뿐만 아니라 한국 철도공단의 우수한 기술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며 본업 이외에도 언어적 역량을 펼치고, 동시에 한 단계 성장할 기



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한국에서였다면 쉽게 접하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항상 발전시키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공부하고, 취업까지 하게 된 경험자로서 느낀 것은 해외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인턴십이나 제가 참여한 '글로벌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수시로 찾아보고, 서구 영어권 국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인건비 확보를 위해 혹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동남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쪽으로 눈을 돌리면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저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아직도 분야와 직무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긴 하지만,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얻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윤곽만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 중 한 명이

었던 제가 해냈듯이 해외 취업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 길이 있을 것입니다.

Tips for Success



- 한국과 해외 국가 정부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검색할 것
- 가능성은 열려 있는 법,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자



권혁준

LG 말레이시아

06

해외 취업, 기회를 통해 꿈을 알아가는 과정



해외 취업 도전 계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24세에 시험공부로 미뤄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입대를 결심한 때는 이미 회계사 시험응시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시험공부를 하던 어느 날, ‘내가 진정으로 회계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시작한 시험에 제 젊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해외 취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에 2페이지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맨큐 교수의 책『맨큐의 경제학』을 원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역할 때 원서를 한 권 통독할 수 있었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제대 후, 해외에서 경험을 쌓을 방법을 알아보니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십, 교환학생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분명해 선택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저를 많이 아껴 주시던 학교 교직원 선생님의 권유로 말레이시아 11번가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이 직무 경험보다는 해외 경험에만 비중이 있는 것에 비해 11번가 인턴십은 실질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저는 언어 능력보다 성실함과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 대면 면접과 화상 면접을 하고, 직무를 결정하는 면접은 현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번가 인턴십에 합격한 저는 CRM 부서에 배정받았습니다. 해외 인턴십에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가치가 바로 직무 경험이었으므로 어떤 부서에 배정받는지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기획 부서에 지원했지만, 경험과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RM 부서로 배정되어 EDM(Email Direct Mailer)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EDM이란 11번 가의 다양한 상품을 이메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상품과 프로모션을 나열한 메일에 불과해 보이지만, EDM에는 웹 페이지 트렉킹과 최적화를 위한 AB 테스트, 카테고리 세분화 등 많은 요소가 결합하고 MD,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간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던 전략 기획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과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5개월간의 짧았던 인턴 생활이 끝나갈 때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제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매니저님께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11번가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말레이시아 11번가에서 저의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은 원화로 80만 원(RM3,000) 남짓 되는 돈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지금의 물질적 보상보다는 업무를 배우겠다는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근무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세부 채널 기획과 그 기획의 성과를 빠른 주기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 특성상 짧은 주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했고,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로 인해 빠른 성과 평가와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의 특성인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11번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 KOTRA에서 주최하는 싱가포르 취

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취업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멘토들과 대화하며 유데미(Udemy)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역량을 기르고, 영문 이력서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관적인 이력서를 만들며 영어 면접을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는 등 앞으로 저의 커리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래의 이력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저의 경력을 개발하라고 했던 것 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온 이후로 정기적으로 제 경력을 관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이력서를 수정했고, 수정한 이력서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비록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력서를 써보는 것은 앞으로의 경력관리에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과 같아서 경력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올린 이력서 덕분에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KOTRA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LG 전자에서 경영기획부서 인원을 충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영기획부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직무이긴 하지만, 아직하기에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경력이 너 무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생각 했고, 마케터로서 경력이 다소 짧았지만, 경영기획부에서 새로운 전문분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마음으로 LG 전자에 지원하였고, 2주 뒤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과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KOTRA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은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행착오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말레이시아는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이 조성된 덕분에 취업 기회를 얻기가 한국에 비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콜 센터, 검열뿐만 아니라 회계 에이전시, 항공 승무원(에어아시아) 등 한국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수요가 있는 곳에 취업하게 되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가 없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현지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저는 첫 직장에서 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로컬 대출자의 초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급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 폭과 해외 취업의 교두보로 삼고 경력을 쌓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무경력자에게 박한 임금 덕분에 취업 준비생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2017년 하반기, 해외 인턴십으로 말레이시아에 처음 온 이후 약 15개월 동안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말레이시아 11번가 정규직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커리어 이외에도 견문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해외 취업이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에서 ‘커넥팅 더 닷(Connecting the Dots)’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들이 당신의 꿈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 점들이 모두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만났던 좋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좋았던 일,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해외 취업은 취업준비생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큼 20대에게 친숙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군대에서 해외 취업을 꿈꾸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해외 취업’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취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에 달을지도 모르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3년을 돌이켜 보면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정하고 해외 취업을 위해서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지인들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을 만났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취업 수기가 조금이라도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시는 KOTRA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Tips for Success

- 미래를 위한 준비(역량 증진)를 소홀히 하지 말자
- 확고한 목표를 놓고 준비하자

채예진

aT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하노이지사

07

베트남 유학생에서 현지 취업까지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베트남에서 2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베트남어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베트남 유학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취업난과 베트남어과 출신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를 생각하다 보니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년 여 시간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익숙해졌고 주변 친구, 선배들이 현지에서 취업한 이야기를 들으며 해외 취업에 대한 열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베트남 다낭 APEC 행사에 지원 요원으로 참여해 청와대, 대사관 분들과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들과 함께 일하며 ‘나도 공공기관에서 일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막연하

게 가졌던 해외 취업이라는 꿈을 베트남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베트남에 있는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관련 구직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각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KOTRA 하노이무역관에 K-move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K-move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취업 행사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얻어 취업박람회 행사를 찾아보던 중 ‘2018 베트남 하노이 하반기 취업박람회’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현장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취업박람회 당시에 진행된 1차 면접 외 추가로 1회의 면접을 포함, 총 2차례에 걸친 면접 끝에 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저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나 특별한 비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취업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언어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관에 취직했다고 해서 한국인과만 업

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직원과 일을 같이 진행하고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영어로 소통을 하는 예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베트남인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베트남어 능력을 키워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어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베트남어 공부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하면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으므로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베트남 유학 중 한국에 잠시 돌아온 기간 동안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당연한 부분에 속하고,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열정을 표출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하고 싶다는 저의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 베트남에서의 한국 농식품 수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입사하여 아직 적응하는 중이지만, 회사 직원 수가 저 포함 8명인 데다 여러 선배, 상사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화목하게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신입 사원임에도 믿어주시고 일을 맡겨 주셔서 덕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며 첫 직장임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착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교통 및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하철이 없고, 도로에는 차보다 오토바이 수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출퇴근 시간 도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학 시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에서 생활했지만, 사실 베트남 교통에 익숙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가 혼잡하고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불편함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 베트남에서 유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취해본 적 없던 저는 처음 베트남에 와서는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극복해 갔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힘든 일

이 있을 때 의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저는 현지에서 유학을 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현지에 와 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내가 여기서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과연 잘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업한 회사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아도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안 맞는 점이 많다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직자들 모두 원하는 나라에서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해외 취업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충분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ố lén(파이팅)!!

Tips for Success



- 베트남 취업을 위해서는 베트남어는 필수
-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기
- 베트남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



김현영

CJ푸드빌 베트남 법인

08

해외 취업, 어디까지 생각 해봤니?



해외 취업 도전 계기

해외 취업,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설레는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저는 운이 좋게 그 순간,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여러 국적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로 팀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경험은 외국인과의 소통할 때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줄여 주었습니다. 어설프게 ‘우리는 팀이고 너는 팀원이니 이 부분을 맡아줘’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명이 팀원들을 움직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넌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하니, 네가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경쟁을 통한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지만, 상대 팀에게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원-원(win-win)할 수 있는 제안만 제시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저만 외국 친구들에게 어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고,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저는 많은 친구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팀뿐만 아니라 수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수업은 ‘나’라는 사람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고,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저의 취업 준비는 해외 인턴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험과 해외 무역에 대한 관심, 해외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덕에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무역 인턴십’에 합격하여 베트남의 한 제약회사에서 인턴 생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상 일

정 기간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베트남 제약 시장과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리포터에 자원하여 직접 느끼고 관찰했던 베트남의 경제 이슈나 주목 받는 시장, 업종에 대해 기사 형식을 갖추어 격주로 기고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4개월 정도 지날 때 즈음엔 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현지 기업의 채용 정보는 KOTRA 호치민무역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채용 권유를 받았으나 제약보다는 다른 업종이 적성에 더 맞을 것으로 판단한 저는, 현지에서 구인기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KOTRA에서 현지 채용박람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구직자로 참여함으로써 구인기업의 리스트와 채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속 수많은 기업 중에서 제 취업 기준에 부합하는 딱 한 곳을 발견했고, 이 회사가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베트남에서의 경험, 조리병으로 지냈던 군 생활, 교환학생 생활에서 느꼈던 자신감들을 자기소개서라는 접시에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취업스터디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레 알게 되듯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별도의 준비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경력을 서면으로 기술하는 것이 자소서이고, 구두로 설명하는 시간이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별로 받지 못하거나 자소서에 없는 내용의 질문 받는다면, 아쉽게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소서는 면접관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회사에 대한 관심, 업무와 연관된 경험, 직무에 부합하는 성격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타인(동료, 상사)을 대하는 태도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자신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기회가 됩니다.

해외 취업에서는 면접관이 국내와 다르게 별도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현지에서 머물 것인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현지에서 적응하는 것 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신입 사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고 진심으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당부합니다.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체류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 후에, 애초에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취업 전 현지 체류기간이 길지 않거나, 체류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취업에 성공했다는 말은 곧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협상을 통해 원만히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분석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크게 보면 협상입니다. 구직자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

니다. 가장 먼저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왜 국내가 아닌 해외인지, 내 장단점은 무엇인지, 내 경험이나 경력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내가 기대하는 연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고 정리하는 일이 협상에 뛰어들기 전에 선결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면 취업을 해도 일을 오래하기 어렵습니다. 불평등한 조건으로 협상(취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의 마지노선은 확실하게 해두길 바랍니다. 만약 취업하는 목적이 경제적 자립이고 최소한으로 벌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두고 협상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훗날 스스로 회사를 세워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직무에 취업해서,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 제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회사의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기업을 운영해온 대기업에 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 해야겠다는 세부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른 여러 사항에서도 기준을 정했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취업)에 성공한 자리가 CJ 푸드빌 베트남법인의 경영관리직입니다.

보통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친구들은 스펙이 출중합니다. 대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같이 어필해주면 군계일학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담백하게 어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계에 대한 관심, 직무에 대한 관심, 현지에 대한 관심을 자

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했습니다.

저는 조리병이라는 보직을 받아 2년여의 군 생활 동안 식자재를 다루고 요리를 해본 경험,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외국 친구들에게 요리를 통해 한국을 소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제가 외식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음을 어필해주었습니다. 또, 경영학을 부전 공했는데, 그때 수강했던 수업들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연간 매출액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회계 원리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부전공이었지만 전공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고, 제대로 가르친다는 교수님의 수업을 찾아 들었던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대한 관심은 현지어 능력과 4개월 동안의 인턴 생활로 어필했습니다. 비록 베트남어 능력이 제가 지원했던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었으나, 저는 면접 때 1분 자기소개를 베트남어로 준비해갔습니다. 혹시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면접관의 돌발 질문에 저는 장점과 각오를 베트남어로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 생활 동안 베트남 제약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경험을 자소서에 기술했습니다. 면접관은 그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진행한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자신 있게 답을 하며 현지에서 짧은 시간 많은 경험을 했음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직무는 경영관리입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해가 갈수록 저는 제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관리회계 기준에 맞추어 작성 및 보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는 외식업이라는 업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에 깊이를 더하고, 제가 작성하고 보고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 차에는 경영실적을 보고하는 것 외에 실적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에 매너리즘을 느꼈고, 실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장의 제품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것은 영업팀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매장에서 공장에 제품을 요청할 때 수량이 제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공장에서는 요청 수량을 효율적으로 기한에 맞추어 생산하는지, 배송해야 하는 제품 수량에 비해 배송 차량의 크기나 차량 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인터뷰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회사의 비효율을 제거했습니다.

3년 차에는 직접 회사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2년 차 때 경험한 것처럼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찾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시스템 도입은 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맡았을 때의 책임감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기존 업무는 유지하면서 별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통해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게 더 큰 일이 맡겨져도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해외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단연 으뜸은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끼리 일해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적과 문화가 다른 현지 직장인들과 같이 일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단순히 언어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혹은 통역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일하려면 현지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실 ‘앎’을 넘어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했는지, 사상이나 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업무 요청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상사의 메일 한 통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거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추궁하는 말투로 물어봤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대답을 가벼운 분위기에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들을 수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해외 취업은 현지에서 ‘현채’로 통용됩니다. ‘현지에서 채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주재원(본사 파견자)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주재원과 현채의 차우 차이를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지 채용을 선택한 것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제가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고 채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현채의 비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해외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본사)에서 채용되진 않았지만 제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었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하며 제 경력(Career)의 전문성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해고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대담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두 번 현지 출장을 오는 본사 대표님에게까지 저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직장생활 3년째인 최근에 이 요청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부터는 한국의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경력을 인정받고,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저의 업무태도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했던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격스러웠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최근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입장에서 구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직자였던 제가 면접관이 된 것입니다. 이 때 느낀 점이 매우 많습니다. 회사는 구인할 때, 구직자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최우선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뛰어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협업할 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업무 매너를 갖춘 사람,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해외에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스스로 ‘나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라고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빨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ips for Success



-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라
- 내 기준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집중하라
- 회사에 대한 관심을 담백하게 어필하라

황준상

GS건설
호치민 법인(GSND)

09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보인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2점대의 학점, 노 스펙(No-spec), 인턴 경험도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레 공시생의 길로 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2년 동안 준비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운 좋게 면접의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어렵게 얻은 면접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부모님의 눈치만 보며 도서관과 전국 시험장을 전전하면서

취업 시장의 절망만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SNS에서 베트남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의 홍보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홍보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해외 취업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지만,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나니 ‘마지막 기회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남아 여행 중 살고 싶은 나라로 꼽았을 만큼 좋은 느낌이 들었던 베트남이어서 큰 고민 없이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에 왔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그동안 저는 베트남에서 두 번의 취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력서를 등록하면 현지 취업을 알선해주는 업체가 현지 기업에 이력서를 돌리고 마음에 드는 지원자에게 면접을 제의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 여섯 번의 면접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접들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매번 면접에서 돌아오면 같이 왔던 형들과 면접 내용과 답변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도와주며 면접을 준비를 지속했습니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취업 알선 업체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 따로 기회를 찾아보며 제가 희망하는 지원조건이 맞는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번의 면접기회를 잡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 종료 일주일 전, KOTRA 호치민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고, 취업 알선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한 기업과 화상 면접을 본 후 첫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회사에 합격한 것은 ‘정보와 경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 후, 재취업을 도와주겠다던 취업 브로커와 연락이 달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자는 생각을 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잡풀러스 사이트와 KOTRA 카페, 취업 사이트와 여러 헤드헌팅 업체, 외국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취업할 때와 다르게 자기소개서까지 써야 했었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지원하는 기업에 맞게, 직무에 맞게 썼었고, 입사 후 포부에는 회사명을 기재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했습니다. 이런 자세 덕분인지 지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개의 기업에서 입사 제의를 받아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GS건설 호치민 법인(GSND)에 최종적으로 입사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왜 수많은 지원자 중 황준상 씨를 뽑은 줄 아세요? 황준상 씨가 유일하게 우리 회사 이름을 쓴 지원자입니다.”

첫 직장 퇴사 후, 새로운 직장 면접을 준비하며 만난 세 분의 법인장님들께 들었던 말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기업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입사 후 포부나 지원동기에 쓰면서 그 기업에 맞게, 그 직무에 맞게 쓰고, 지원자의 관점에서 지원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지원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쓰는 줄 알았지만, 면접 기회를 주셨던



여러 기업 중 세 개 회사의 법인장님들께서 '요즘 지원자들은 복사와 불여넣기를 많이 한다. 그런 지원자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 제 글을 보시는 분 중 서류전형에서 이유 모를 탈락을 계속 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 직무에 맞게 쓰고,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원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면접에서는 지원 기업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자기소개를 충실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하기 전,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언제 해외에 진출했는지 등을 알고 가는 것이 지원 기업에 응시한 지원자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면접에서도 자기소개를 시키므로 미리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실무 경험 없는 2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지만,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정도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온 직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도와주려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무시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서 직원들의 무시를 받는다면 앞으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게 분명했고, 그렇다고 제 지위를 이용해 우격다짐으로 아래 직원을 누르려고 든다면 저를 도와주려는 직원들의 반발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했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려 하지 않고 신입직원의 자세로 배우려고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가 마침내 호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동료 직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 현지 직원들이 초대한 파티나 회식 자리에도 참여하며 일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또, 개인적인 친구로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첫 번째로 입사했던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지출이 거의 없었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호치민 시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월세를 내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의 4분의 1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곧 은퇴하시는 부모님께 급여의 4분의 1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 빠듯한 생활에 해외정착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부모님의 소득분위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해외 취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였고, 임금피크제로 아버지의 급여는 현재 제 급여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산정된 보험료 기준으로 해외정착 지원금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소득분위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 월급쟁이들은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내 취업이 어려워 해외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신다면 실업률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솔직히 저는 해외 취업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에 성공했고, 현지 생활에도 잘 적응해서 베트남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실패한 사례를 직접 보기도 했고, 많이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근무 조건은 우리나라보다 열악합니다. 주 6일 근무가 기본이며, 휴무일도 적고 수당이나 급여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외롭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취업에 도전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ips for Success



- 성실하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할 것
- 모르는 게 있으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물어보기
- 신입의 자세, 신입의 마음가짐으로 현지 직원들에게 다가가기

조윤경

Start-Lite Service

10

내가 원하는 미래, 스스로 개척 한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취업한 분들과 다르게 이미 한국에서 10년 넘게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면 한 번쯤 ‘난 언제까지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내 선배들의 모습이 과연 내가 원하던 10년, 20년 후의 모습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미래의 제 모습을 다르게 그려보기 시작하면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주로 찾고 있는 구직자(30대 초·중반 남성)와는 거리가 있어 취업하는데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및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해외 취업을 결심한 후부터 꾸준히 온라인 취업 사이트 여러 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신뢰가 가는 포지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서너 곳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점검했습니다. 그중 KOTRA에서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는 제가 빠지지 않고 항상 점검한 페이지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비해 업체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올라온 포지션도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인도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점이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업체가 가장 좋은 대상일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한국 업체는 원하는 지원자 요건이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중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여 이를 최대한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업체에 취업이 되었는데, 인도에서 지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규모 인도 업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지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일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소통이 필수니까요. 일단 그 나라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오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한 번쯤 되물어 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령 인도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건 못 배운 사람들이 나 하는 짓’이라고 배워 온 저 같은 한국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행동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보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좋다’ ‘나쁘다’ 그런 관점보다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자세, 인도인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인도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는 열린 사고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서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자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해외 취업을 결심한 분들은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인도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ips for Success

- 현지어 능력은 필요하다
- 자신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노력하라



North America



북미



뉴욕	김나래 Seoul Trading USA	125
	이은영 Samhwa USA Inc	133
로스앤젤레스	김지인 KORI AMERICA	144
	윤현수 JC&Company	149
밴쿠버	박서연 Canada Nest Immigration Consulting Ltd.	161
	유은미 K-Bro Linen System Inc.	173
	전진민 Parq Vancouver Casino	179



NORTH AMERICA





김나래

Seoul Trading USA

01

강원도 인제에서 뉴욕에 오기까지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아버지가 육군 장교이셔서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고, 강원도 인제에서 30여 분 더 들어가는 ‘현리’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 세계라는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꿈과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 욕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휴학’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요즘, 저는 4년을 쉬지 않고 노력해서 사회에 뛰어들어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휴학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필리핀으로, 겨울방학 때는 영국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영어’라는 언어에 많은 자신감이 생겼고, 2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지원하여 호주 The University of Sunshine Coast에서 두 학기(1년)를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활동하겠다는 꿈과 무역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국제통상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영미권 국가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대학 3년을 쉼 없이 달려, 4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해외에서 해외에서 일할 준비와 자격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을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에게 얻고 싶어 K-move 센터에서 진행하는 해외 취업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저의 취업 성공 가능성과 더불어 어느 국가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의 진로와 준비사항을 더 확실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및 KOTRA 주관 ‘2018 글로벌 취업박람회’(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에서 기업 인터뷰를 했고,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저는 꼭 일하고 싶었던 기업인 북미지역 최대 동양식품 수출입 유통회사인 Seoul Trading USA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아무리 해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시나 사이트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 관련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얻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수시로 일정



정보를 확인하였고, 더 필요한 제출서류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나 설명회가 있는지, 혹은 관심이 가는 회사 채용공고가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였습니다.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취업박람회의 기업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두 곳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학생으로서가 아닌 사회인으로서 내 보이는 저의 첫 이력서를 두 회사 모두 호의적으로 평가해주었고,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이 두 곳의 기업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면접과는 다르게, 기업 인사담당자와 인터뷰하는 자리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면접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면접 준비 시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KOTRA에서 주최한 각종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취업 환경설명회’에 참석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근무 중인 인생 선배님들의 강연도 듣고,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취업박람회 참가 전, 기업 인터뷰에 참석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2018 KOTRA 상반기 영미권 취업스쿨’에 참석하여 인터뷰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사회에 남들보다 빨리 뛰어들고 싶어서 휴학이 아닌, 방학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였고, 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것이 저의 취업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동기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휴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무얼 원하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면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 날짜가 정해지고 ‘2018 KOTRA 상반기 영미권 취업스쿨’에 참석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고, 모의 면접을 하며 주어진 1~2주의 시간 동안 수도 없이 혼자 인터뷰 질의응답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란 ‘김나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전반적인 저의 인생사를 말하는 것이고, 인터뷰는 수많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지원자 중 하필 나를 왜 채용하여야 하는지를 어필하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시간에 제가 입상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주관 ‘비즈니스 컨설팅 경진대회’에서 발표했던 FTA(Free Trade Agreement)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를 인쇄하여 당시 면접관이셨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채용팀 담당자(HR team manager) 이대찬 차장님께 드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도 어려운데, 해외라고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에서 대학 생활 중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을 확실히 표현했고, 전체 지원자 49명 중 채용인원 안에 들어 현재 Seoul Trading USA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간절함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미국 내에 널리 퍼져 있는 HMART라는 한인마트에 아시안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 수출입 유통회사입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무역부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은 다른 미국 기업보다는 조금 이른, 아침 8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어 회사 상사분의 배려로 같은 부서 직원과 출퇴근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다른 회사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른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데일리 업무로는 벤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바이어 분들을 도와 각 컨테이너 하역 시 원가계산을 합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는 쌀에 관한 각종 인보이스 및 Bill of Lading, 통관 서류 등을 정리하고, 미국에

서생산하는 쌀을 영국 등지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정보들을 포워더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시되는 신제품을 수입할 때, 미국 마트에 신상품 등록 요청을 하는데,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루는 제품군이 식품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 식약청의 성분 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회사에서 따로 제품 샘플링 작업을 통해 certified-laboratories에 보내기도 합니다.

회사 상사나 동료들 모두 인턴인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아무래도 무역팀 소속이다 보니 업무적으로도 각 식품의 특성을 비롯한 인보이스, Bill of Lading, Certificate of Origin 등의 서류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이 훗날 식품이 아닌 다른 무역업에서 일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외국에 나와 혼자 살다 보니 주택 임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살 때는 주택임대료가 가장 큰 지출항목이 되어서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더 절약하며 계획적인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의 원룸인 스튜디오(studio)가 아닌 룸메이트의 개념으로 집을 쉬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지난 1년은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미국에서 직장인으로서의 타국 생활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저의 장점인 친화력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며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첫 직장이다 보니



학생과 직장인으로서의 큰 차이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렇듯, 긴장 속에 3개월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도 작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내다 보면 단조로운 삶에 지치기도 하고, 가끔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꿈을 이루어 냈으니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며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뉴욕 시티에 나가 여행 온 사람처럼 관광지에도 다니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바닷가를 가기도 합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내 일생에 최고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리라’를 마음속에 새기며 일과 여가도 열심히 즐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너무 심심할 때는 뉴욕이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열리는 사교모임에 참석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카약과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모든 애로사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평을 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을 바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만들어 온 저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매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옵

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공부를 비롯한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목표를 세우고,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여 나의 목표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준비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그 부분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참가할 수 있는 강의나 박람회가 있다면 반드시 참가하여 본인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해외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ips for Success



- ‘남들처럼’이 아닌 ‘남들보다 빠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기회는 인터뷰 시간!
- 간절함과 철저한 준비를 보여라



이은영

Samhwa USA Inc.

02

뉴욕에서 한국인 유학생으로 살아남기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유학 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대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제 미국대학을 졸업할 경우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에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이 되는 경우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1년이 지난 후 회사가 취업비자를 지원해준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에게 OPT 1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는 말은 사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멋진 분이 많은 이곳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곳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저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 작은 힘이나마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휴학 한번 없이 편입, 입학 등의 과정을 겪으며 5년 동안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미 졸업하고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느렸던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대한 막연한 향수, 학교를 곧 떠나지만 정해진 것이 없기에 느끼는 불확실함 등으로 인해 우울해져만 갔고, 그 무엇도 저를 무기력함에서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끝나는 5월까지 힘겨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우울함 때문에 그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싶어 밤마다 외로움을 음식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찌고, 자존감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 누구에게도 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숨은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유로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없이 컼던 옛날과 달리 갑작스럽게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이 왔고, 저는 이 모든 게 첫째인 제가 대학을 오래 다녀서, 아직 일도 못 하고 있는 학생이어서 그렇다고 자책했고, 그 어둠이 저를 삼키기 일쑤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을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미안함과 더불어 어깨에 짊어진 부담감이 있었고, 그 마음들에 눌려서 제가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면, 5년 혹은 10년 후, 미래의 난 분명히 뉴욕에서 일할 기회를 놓쳤음에 무척 후회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 하나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졸업식 후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오니, 더디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이 보였고, 가족들이 보였고, 그리고 제가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인 것을 몰라서 스스로를 굽어먹었던 저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다시 가서 도전해보기로 했고, 최선



을 다해 도전해보고 안되었을 때, 그때 한국에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OPT 기간 동안 저는 미국에 있는 NGO 단체 중에 무료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했고, 인터뷰 후에 뽑히게 되어 트레이닝을 받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Informational Interview 연습, 사람들 앞에서 30초에서 1분 동안 내가 달성한 목표 발표하기, Networking 이벤트 등 Job Interview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는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뉴욕에 산다면 이런 점을 200% 활용하길 바랍니다.

뉴욕은 가장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반영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 멘토 중 한 분께서 한국인 친구라며 또 다른 분을 소개해주셨고, 저는 그 한국인 유학생 선배를 통해 KOTRA에서 주최하는 Career Fair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평소 KOTRA에 관심이 있던 터라 Career Fair에 가서 KOTRA 직원께 제가 “KOTRA 직원분이시죠? 혹시 가지고 계신 거 명함인가요? 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니, 명함을 주시면서 꼭 복장이 항공사 승무원 같네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물으셨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자 “저 회사 좋은 회사예요 한번 가보

세요.”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콕 찍어 주신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Samhwa USA Inc.입니다.

당시 Career Fair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 외에 약 8곳에서 Informational Interview를 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회사에서 아무 탈 없이 잘 풀려서 일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B 회사에서 첫 근무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1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 터라, 의심도 많이 했었고 회사 정보도 많이 찾아봤었는데도, 직접 겪어보니 또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정된 것이 없었고, 회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HR팀에서는 신입사원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팀이 서로 신뢰하고 돋기보다는 각자의 일이 중요하고 바쁘다며 어떤 팀의 일이 가장 어려운지 겨루기라도 하듯 따로 놀기 일쑤였습니다. 얼굴은 모두 어두웠고, 형식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그곳이 과연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 제가 양해를 구했던 모든 부분은 이제 저의 약점이 되어 화살로 제게 돌아왔고, 그 회사의 대표는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는 제가 맘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단시간에 많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첫 직장은 그렇게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험 덕분에 좋은 분들과 많이 배우며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기 전, 여러 회사를 놓고 고민하던 중, 관리자분과 통화를 하다가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은영 씨, 인터뷰 후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지금, 부디 우리 회사 때문에 은영 씨에게 다가온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말입니다. 뉴욕이라는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든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 사람이 귀



하게 여겨지기보다 돈이 중하게 여겨지는 이곳에서, 그분은 단 한 번 얼굴 보고 이야기했던 어린 유학생의 미래를 걱정해주었고,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어디든, 그곳이 뉴욕이든, 한국이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고, 존경할만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합니다.

저의 면접 준비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틀에 박힌 답을 외우기보다는, 제가 저 자신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돋기였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에게 답이 되어주었고,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라는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스펙을 쌓다가 시간이 다 가고, 오히려 지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취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취업하기 두 달 전부터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좋아했던 취미들을 찾아 도전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에 가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고, 그 친구들과 나누고 위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데 그렇게 놀 수 있겠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결

론적으로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제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의 기준을 잡게 됐고, 어떤 시각으로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분명 훗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해 더 어렵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함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자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취업을 위해 제가 한 노력은 면접을 보러 가기 전, 저는 복장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넥타이를 이용해 옷차림에 저만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혹은 비슷한 복장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넥타이를 리본 모양으로 스카프처럼 연출했는데, 실제로 KOTRA 담당자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의 복장 때문에 저를 기억해주셨고, 그것이 저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옷차림새만으로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엔 부족합니다. 직장 상사 중 한 분은 저의 밝은 표정과 목소리, 씩씩함에 저를 기억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공손하고 또렷한 말투로 인터뷰에 응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CEO라면,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틀에 박힌 모습보다는 내가 가진 나만의 솔직함, 나만의 경



험을 간단명료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길어야 30분 안팎의 시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회사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회사 소개서와 같은 회사 관련 자료를 보고, 나의 장점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한 중국어와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통해 언어적으로 발전시킨 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가 해외 곳곳에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는 Samhwa로써는 각종 미용 박람회(Beauty Trade show)를 통해 회사를 홍보할 때, 제가 영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실무에 도움이 되고, 고객사에서도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 캐나다 등에서 학교에 다닌 경험을 통해 그들의 문화 또한 이해하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대화에서 쉽게 공통점을 찾아 긍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풀려 전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겸손함은 오히려 나의 장점을 가려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이더라도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면접관들은 인터뷰이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나 또한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이므로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곳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지 회사에서 입사하기 위한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막상 회사에 들어갔을 때 목표를 잃고 방황하며, 무료함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한국에 헤드쿼터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지만, 미국 법인이 생긴 지는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당 주어지는 업무량이 많고,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저 역시 제품 공부부터, 무역 업무(Invoice 작성), 엑셀 서류 정리, 한국 헤드쿼터와의 소통, 택배 보내기, Stock Room 정리까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이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최대치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앞에서 못 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저를 가르치시는 과장님께서 매우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회사 동료들과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이 시기에 감사합니다.



어디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직관계보다는 수평관계일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돋고 업무를 함께 의논하고 회사를 함께 세워갈 때의 그 뿐듯함과 기

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생각과 태도로 일에 임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다듬어지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믿고 서로 협력해서 모든 멤버가 가진 잠재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취업을 준비할 때 미국계 회사에 원서를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인턴십과 파트 타임 등 조건을 가리지 않고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유학생의 F1 비자로는 취업의 벽이 생각보다 넘기 어려웠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짧든 길든 미국에서 꽤 많은 파트타임 혹은 인턴십 경력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한 경험보다는 한국에서 틈틈이 일한 경력이 있었고, 청소년 교육 활동에 관련된 경력이 있어서 인터뷰 때 일한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풀어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한국에서 장기간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한국에서만 일한 경우, 영어가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영어 실력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태도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고난을 기회로 바꿔서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은 포기하지 않는 한, 고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번 매 순간 닥치는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또한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느낀 심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훗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혹은 고난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 진학할 때, 졸업과 취업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삶으로 보여주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기억하고 매 순간 제 앞에 닥친 고난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으로 제가 더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사실 지금도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저로서는 ‘이것이 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한국에서 성장한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짧은 기간이더라도 미국 또는 해외에서 일할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J1이라는 인턴십 비자는 취업비자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일하러 온 많은 친구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어렵지만 또 도전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장 뒤



처셨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중학생 때까지 시내버스를 타는 방법조차 모르던 소녀도, 나 훌로 이렇게 뉴욕에서 잡초처럼 성장하며 더 강해졌으니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도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만큼 열립니다. 꿈꿀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조금 느리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그 꿈속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느리다는 것은 잠시 쉬어간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후에는 분명 당신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은 나를 절대 삼킬 수 없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곳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Tips for Success



- 평소 취미를 찾고,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을 것
- 면접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찾자 (복장, 긍정적인 생각)
-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갖자

김지인

KORI AMERICA

03

미국 패션의 중심 자바시장에서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취업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각 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분야이든 '글로벌'을 떼놓고는 논할 수 없는 21세기 사회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류학과 출신으로,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패션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업계입니다. 저는 미국의 언어와 문화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패션업계가 어떤지 경험해보고 배워야 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와 KOTRA를 통해 LA의 패션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KORI AMERICA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패션 회사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요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취업을 위해 저는 취업사이트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해외 취업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했고, 대학에 재학하면서 외국계 및 해외 취업 대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소개서(cover letter) 및 이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그 기업의 사업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지, 왜 그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를 강조하여 담았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진이나 가족관계 등 사적인 정보들은 생략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학업, 자격증, 경력, 기술들만을 기재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동아리에서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에서 보통 어떤 질문들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지 연습했습니다. 저는 회사와 화상 면접을 진행하였고, 통과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KOTRA에서 에이전시를 소개받고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스펠서 기관과의 인터뷰 후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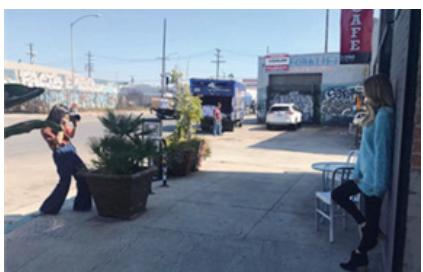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우선 회사를 고를 때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매출액과 사원 수를 통해 파악하고, 회사의 위치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준비 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앞서서 자칫 좋지 못한 조건의 회사나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회사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히 조사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짧게 훑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열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에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질구레하거나 검증이 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생략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무엇보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회사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하게 될 업무, 급여, 휴가 등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인해야 합니다. 저는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스폰서 기관과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KOTRA 무역관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현재 저는 근무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웹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로 운영되고, 공식 사이트 외에 3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한 그래픽 작업,

업로드부터 인벤토리, 인보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저의 주 업무이고, 매주 제품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디자인팀, 프로덕션팀, CS 팀 어시스턴트를 한 달간 경험하며 회사 전반의 업무들을 파악했고, 현재 하는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힘들



었던 외국인 직원들과의 소통 또한 퇴근 후 영어공부를 하면서 현지인들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돋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저는 어학연수로 미국에서 이미 1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미국의 문화나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으니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취업 후 이곳에 오니 문화의 차이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 힘든 일도 많은데, 그때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 담당 KOTRA 직원분과 연락하여 여러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에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회사나 업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과정에서 친밀도를 쌓아 힘든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학연수를 할 때와는 다르게 사회인으로서 현지인들과 정확한 소통을 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괜히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게 부끄러워서 말도 최대한 하지 않으려 했고,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끝난 후 비즈니스 영어 관련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영어를 연습하였고, 확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어를 써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미국 현지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보람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경험을 쌓고 한국에 돌아가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직장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취업도 도전해 볼 생각이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 시장이 예전보다 커진 지금,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ips for Success



- 수시로 해외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하자
-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자
-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윤현수

JC&Company

04

기회의 땅 미국, 그곳에서 답을 찾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2016~17년에 걸쳐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에서 2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는 영어 실력 향상과 해외 생활을 통해 이전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미국에 오게 된 저는 1년 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한국 대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미국 대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격한 가장 큰 차이점은 일과 학업의 병행이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학생, 심지어 저 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미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규직 혹은 졸업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약속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학생들이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학생들이 직장에서 누리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 그리고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수업 일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미국의 고용주들을 보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 전부를 학점관리, 스펙, 어학성적, 각종 시험 준비 등에 투자하고, 다양한 취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경력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일할 기회를 누리고, 고용주들 역시 학업을 지원,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의 취업 시장에 나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 역시 해외 취업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경영학 중에서도 회계, 세금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 세금 분야가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어민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전문지식 분야인 만큼 제가 일을 하면서 얻는 지식과 실무경험이 저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학 공부와 막연히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지원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결국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환 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4학년 마지막 학기를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에



온라온 회계·세금 인턴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JC&Company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제가 해외 취업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해외 각국의 일자리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 및 지원서 접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제가 원하는 국가와 직무 공고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며 과거에 해외 취업을 한 학생들의 성공노하우를 듣고, 준비전략이나 새로운 일자리 공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 먼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락처를 구해 그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성공 노하우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해외 취업 일자리를 분명 공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해외 취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외에 있는 고용주가 한국의 학생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면, 중간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학생들을 찾아 연결해주는 업체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고용주의 요청을 받으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교에도 이를 공지합니다. 대학 국제팀에

서 해당 학교 지원자들을 받아서 업체와 연결을 해주며, 그때 업체에서 간단히 지원자를 심사해서 자신들에게 의뢰한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지원자라고 판단되면 그때 해외의 고용주에게 지원자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면접이 진행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이지만, 학생과 해외 고용주 사이의 실제 매개체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굳이 학교 국제교류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설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훨씬 많은 해외 취업 일자리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국제처를 통해 취업하실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국제처에 게재된 업체에 학교를 통해 취업을 할 경우, 학점 이수와 해당 기간의 학비 면제와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사설 업체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취업하기보다는, 학점을 이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학비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해외 취업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역시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들은 실제 해외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분야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영어 공부나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렴하게 해외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취업 관련 교육을 1학기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해외 취업 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일자리지원국은 '월드잡플러스'라는 해외 취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성공 시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우대 국가 같은 경우는 최대 합계 800만 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400만 원가량의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했다면, 해외 취업 성공 후 같은 목적으로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드잡플러스와 경상북도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니, 본인이 경상북도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원금 규모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관 한 곳에만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가장 먼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 조언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적성을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전망이나 연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계·세금 분야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갈 금전적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고객에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이나 다양성보다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일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별로 적용되는 세목이 다르고 그 개념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잡하고 방대한 양,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업무가 불가능하고, 그만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 적성과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취업 정보를 열심히 찾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면접이나 이력서 작성법 등을 배웠던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력서 작성법이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한국처럼 정해진 이력서 양식이 없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 미국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좋은 이력서 예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예시와 가이드를 참고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첨삭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면접 기회를 얻었다면, 면접 시 예상 가능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예상 가능한 질문으로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이슈, 그리고 본인이 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합한 인재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회계법인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었을 때, 해당 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회계, 세금 및 다른 서비스들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 시 제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특히, 제가 공부했던 미국 세법 지식을 언급하면서 세금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본인이 맡은 일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제가 담당하게 될 고객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주로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그동안



해왔는지 파악해서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일하면서 배우는 내용은 모두 받아 적고, 매일 그 날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고객들의 세금신고서를 살펴보면서 적용되는 개념들을 정리해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언어 공부입니다. 언어 실력은 단기간에 향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하는 국가의 언어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위에 언급한 해외 취업 준비 및 실무에 관한 공부와는 별개로 영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영어공부였다면, 이제는 실제 원어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드라마를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청취력을 키우고 대사를 따라 하면서 발음 및 표현력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일하며 느낀 점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동료 중에서 저처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언어 때문에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고객 전화나 거래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전화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모두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영어에 한계를 느끼고, 전화를 걸고 받는 일에 두려움을 느껴 나중에는 전화를 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를 일찍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 약 9개월 동안 회계·세금 분야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세금에 및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회계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객들의 은행 계좌별로 발생하는 거래들을 장부에 입력 후 매달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고합니다. 그리고 법인 고객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납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 개인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연방과 해당하는 주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발생하는 판매세, 자산세, 증여세 등의 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돕고, 사업을 종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청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처음에는 업무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회사와 미국생활 적응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입사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제가 담당하게 될 고객들과 관련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배우는 동안에는 항상 배우는 내용을 노트북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중에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반드시 물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배운 내용은 당일 정리하고 복습하며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관련 지식 향상을 돋기 위



해 매주 1회 진행하는 세미나 시간도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가 친절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질문에 대해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업무가 끝나고도 저녁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만나 함께 어울리면서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상하 간의 구분 및 규율이 없고, 모두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상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덕분에 업무를 배우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면접에 합격한 이후부터는 현지에 가서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州)는 미국에서 물가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집이 넘는 방을 이용해 세입자를 받고, 월세도 한국과 비교해서 비싼 편입니다. 얼바인(Irvine)에서는 보통 이렇게 일반 가정집의 방 한 칸을 얻어 하숙과 비슷한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매달 700~900달러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보증금으로 한 치 월세를 내며, 한국 하숙처럼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끼니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월세 및 식비로 최소 1,000달러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게다가 일부 가정집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도 하니 이를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몇 개월 이상은 꼭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하고, 또 일부 가정집에서는 이사 나갈 때 청소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을 만나보고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숙 형태로 집을 구하면 집주인과 함께 사는 불편함이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개인 원룸 아파트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파트는 한국과 달리 아파트 내에 다양한 편의 시설(헬스, 수영장, 바비큐 그릴,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는 대신, 최소 매달 2,000달러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하며, 수도, 전기, 가스 및 관리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인 가정집을 선호한다면, '라디오 코리아'라는 한국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만큼 많은 한국인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신다면 대부분은 급여를 고려해 봤을 때 원룸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월세 수준과 본인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미리 알고 오셔서 실망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취업 후에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중교통은 아주 큰 대도시를 제외하

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바인은 근처 LA와는 달리 지하철이 없으며, 오직 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선과 배차시간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과 차로는 5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버스를 탔을 경우 1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높은 월세에 더해 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인턴 월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면허취득도 필요하니 그 과정 역시 번거롭습니다.

만약 집을 회사에서 걸어가기에 너무 먼 곳으로 잡으셨다면,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방법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이 부업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하게 운행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용 가능하며, 일반 택시와 비교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우버 비용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보통 8~10달러 정도가 발생하며, 하루에 2번, 주 5일 이용할 경우 최소 약 360달러 정도의 교통비가 매달 발생합니다.

불편한 대중교통과 비싼 우버 요금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회사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집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이동 가능한 회사 근처에서 빈 방을 구하는 일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밀집해있는 곳이 번화가 근처이므로 주거단지가 없거나, 더라도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자전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오지 않고, 겨울에도 한국과 비교할 때 따뜻한 편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저의 경우 회사와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자전거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좋은 방을 상대적으로 싸게 구할 수 있었고, 교통비도 크게 절감할 수

았습니다. 만약 생활비 절감을 원하신다면 알바인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우리는 모두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내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 4년 역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또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자주 우리의 노력, 열정,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시키고 자책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Tips for Success



-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배운 내용은 그날 꼭 내 것으로 만들기
-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 외국어 공부 꾸준히 하기



박서연

Canada Nest Immigration
Consulting Ltd.

05

내게는 늘 꿈꾸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2018년 5월 한국에서 KOTRA에서 진행한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현재 Canada Nest Immigration Consulting Ltd.(동지이민)에 취업했습니다.

대학교 때 밴쿠버에서의 어학연수 경험을 통해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기간 동안 유학원에서부터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면서 ‘유학 상담가’란 단지 학교를 소개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한 부분을 설계해주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직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유학 상담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캐나다를 간다면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밴쿠버, 토론토가 아니라 몬트리올처럼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편이 나중에 캐나다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거나 한국에서 유학 상담가로 일했을 때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의 나이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면 꿈에 더 가까워질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몬트리올 유학 후, 다니던 리쿠르팅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 전문 유학원에서 유학 상담가로 이직하여 1년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KOTRA와 월드잡플러스 등 해외 취업 관련 채용박람회(Job Fair) 및 공고를 보면서 유학 관련 업체도 참가하는지 체크해왔었습니다. 마침 2018년 5월에 이민과 유학 업체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동지 이민’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캐나다 현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민 업무까지 배울 기회여서 커리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지원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회사에서 일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KOTRA에서 면접이 끝나고 합격이 된 후, 대표님께서 몇 주 후 한국으로 출장을 오셨습니다. 바쁜 출장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저에 관한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관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제가 할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회사가 저를 단순히 직원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인하는 곳이라면 앞으로 서로 신뢰하며 일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겨 현재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이민 및 유학, 교육 관련 회사의 채용 과정은 1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2차 임원 면접, 3차 대표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담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펙보다는 면접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물론 영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인사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경험을 부풀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정확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과 경력을 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스토리를 담는 것이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에 Meet up이나 Language Exchange, 소모임 등 무료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동아리 및 모임이 많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며 모임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그곳에서 만난 분들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께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어로 말할 기회까지 있으므로 영문 서류 준비와 영어 인터뷰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차 면접은 대부분 1:1 또는 1대 다수 임원과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학 및 이민 업무가 고객과의 1:1 상담이며, 각 고객에게 맞는 교육 및 이민 방법을 제공하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1:1 면접을 선호합니다. 면접은 지원자의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유학, 이민 관련 주 업무가 고객 상담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유학원 이름보다는 담당자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면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하는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접 전에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회사의 타깃 고객과 마케팅 방향, 주요 사업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 및 유학 관련 회사에서는 회사별로 타깃 고객층과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KOTRA 채용박람회(Job Fair)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캐나다 유학 경험 그리고 취업 후 다시 한 번 유학교육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몬트리올로 유학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캐나다 전문 유학원에서 근무했던 업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이나 경력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기 위



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취업 후에도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인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는 밴쿠버에 있습니다. 회사의 타깃 유학 또는 이민 프로그램은 당연히 밴쿠버가 있는 BC주(州)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유학 프로그램은 토론토가 있는 ON주(州)의 유학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밴쿠버에 있지만, 캐나다 동부 쪽으로 공부 또는 이민하려는 고객이 있으니 그 고객까지 회사가 흡수할 수 있다면 더 큰 매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언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영어를 쓸 기회가 많지 않아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직시장에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저 또한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 업무를 위해서는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경우, 취미 생활로 영어 또는 제 2외국어를 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영어 동호회, language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세계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anguage exchange 프로그램 즉,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에게 한글을 영어로 가르쳐 주고, 외국인은 한국인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배움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굳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영어나 제2 외국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언어를 배우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는 완벽한 지원자를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사내 문화에 잘 적응하며, 배우고 노력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저에게 IELTS라는 영어 공인시험으로 영어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KOTRA 채용박람회(Job Fair)에서는 한국어로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캐나다 현지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하니 면접 후 한 달 이내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IELTS 시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결과를 보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5회 하루 3시간씩 퇴근 후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 후 시험을 보았고, 회사에서 요청한 점수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애근 후에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회사(둥지이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함이 있다면 물리적인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노력할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실수하는 것 이 당연하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조금 가까워지도록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얼마 후에는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선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K-move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그룹의 멘토님과 멘티와의 만남을 통해서 각자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하고, 실전 연습(예를 들어 네트



워킹 형성하는 법, 원하는 직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의 cold calling 등)을 하며 자신감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또한, 멘티별로 적합한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방법,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멘토님의 다양한 조언을 들으며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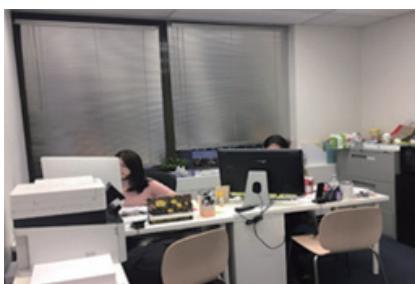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멘토님을 중심으로 멘티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각자 조사하고 연습한 자료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칭찬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KOTRA 밴쿠버 무역관에서 주관하는 2018 KOTRA 밴쿠버 채용박람회(Vancouver Job Fair)에서 제가 원하는 직종의 호텔 담당 HR 매니저와 면접을 볼 때, 여태 까지 배웠던 내용과 연습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히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했고, 두 번의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현재 저는 캐나다에 유학 및 이민 온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각 개인의 요구에 맞는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비자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에게서 끝나는 업무입니다. 일을 할 때는 고객은 물론,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배움을 위해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직원 중 유학과 관련된 경력이 가장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의 경력은 다른 직원들이 저보다 더 많으니 저는 그분들을 선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에서 인사드릴 때나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제가 캐나다에서 경력이 부족하여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다른 직원 또는 상사 분들께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일이더라도 근무지나 지역이 달라지는 경우, 회사마다 진행 방식과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다른 직원분이나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나 잘못된 업무 진행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한국 회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9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야근이 없으며, 한국에서의 선후배 서열이 있

는 수직적 조직문화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분과 임원분들이 회사 생활 및 캐나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회사에서도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한 교육 시간도 따로 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이 확정되고 준비할 때는 떨리긴 했지만, ‘캐나다에 가면 예전에 연수했을 때처럼 항상 즐겁고 재미있고 한국처럼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라는 설레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약 2년 정도 밴쿠버와 몬트리올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적응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과거 캐나다 생활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학업에만 집중하면 되었지만, 현재 제 신분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국이든 캐나다든 모든 직장인의 생활은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 해서인지 업무에 대한 제 자신의 평가가 괴로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캐나다까지 왔는데 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쩌지?’, ‘회사에서 나에 대해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저런 고민 탓에 밤잠을 설치고,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과 몸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구두로 할 때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펜 하나를 2주 만에 다 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료들이 항상 저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적응하는 단계니 천천히 해도 된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힘을 낼 수 있게 격려해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문의할 때마다 제 자리 까지 오셔서 알려주시고, 필요한 게 있는지 저에게 항상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회사 동료와 임원분들 덕분에 지금도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타국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혼자 자취생활을 해왔고, 캐나다 연수할 때도 타국에서 혼자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으며,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것 저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교 졸업 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 그중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란 것을요. 서른이 넘는 나이에 한국에 있는 모든 생활 기반과 직장, 친구, 가족들을 두고 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부터 모든 인간관계까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모든 일이 회사 업무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 캐나다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는 이민자분들도 있다 보니 누구보다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 분들께서 지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제가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주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직접 구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제가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여 잘 챙겨 먹어야 적응도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저에게 한국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회사 임원분과 동료들이 있어서 저는 현재 캐나다에 온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캐나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은 단순히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문화,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것을 수용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도 그 준비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의 고단함이나 타국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타국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노력과 과정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결심을 떠올린다면, 무엇보다도 취업하기 위해 탄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설렘을 이따금 떠올린다면 힘듦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할 수만 있다면 그 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학 연수를 다녀오더라도, 그 후에는 언어 능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를 많이 접하면서 언어뿐 아니라 추후 그 나라에서 정착할 때 도움 되는 문화를 많이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전공, 경력에 얹매여 자신을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해외 취업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ips for Success



- 배우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 목표하는 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가까이 한다
- 지적 호기심을 갖자



유은미

K-Bro Linen
System Inc.

06

5개월간의 고생 끝에 얻은 일자리



해외 취업 도전 계기

2014년 KOTRA 밴쿠버무역관에서 인턴으로 일 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6개월간 인턴을 하면서 경험했던 밴쿠버에서의 생활 및 문화에 매료되어 서 꼭 다시 오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턴이 끝난 이후, 한국에서 돌아와 영어 시험 등 5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다시 밴쿠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서 1년 동안 워킹 휴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 인사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전공에 맞춰 인사 관련 직종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보았고, 결국 5개월 동안 수많은 실패를 이겨내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합격하여 수습 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주최 취업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했지만, 캐나다의 취업 시장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와중에 KOTRA 밴쿠버무역관에서 주최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야인 인사 분야의 멘토님이 계셔서 그 멘토링 그룹에 참가하면서, 한국인에게 맞으면서도 캐나다 취업 시장을 공략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인사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실제로 많은 이력서를 보시기 때문에 가장 최신 경향과 실제 면접자의 시각을 갖추고 계셔서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력서 작성 시 구글링과 이력서 관련 책들을 통해 예시를 많이 봐가면서 계속 수정을 하며 조금씩 나은 이력서를 만들 수 있었고, 멘토님과의 1:1 멘토 시간을 통해서 첨삭 받은 것이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므로 동작동사(active verb)를 사용하는 법, 같은 내용이라도 더 잘 포장하고 꾸며서 더 부각되어 보이도록 고치는 법 등을 1:1 멘토링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께 이력서를 첨삭받은 후, 저에게 들어오는 인터뷰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터뷰가 잡히고 나서도 멘토님께 계속 인터뷰 연습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 저를 더 욱더 잘 나타내는 방법, 포인트 공략과 같은 도움도 얻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저는 앞서 밝혔듯이 캐나다 취업 시장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잘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취업박람회와 취업 기회가 있는 곳들은 무조건 찾아 갔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취업 시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준비 과정(searching, resume and interview)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KOTRA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저에게 가장 큰 성공 노하우였습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얻은 실질적 조언과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멘토링 모임마다 숙제가 항상 있었는데, (예를 들어,

LinkedIn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인물 5명을 찾아 프로필 분석해오기, cold calling 해보기 등) 그런 숙제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패 하더라도 숙제는 무조건 해갔습니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얻고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수정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도 첫 인터뷰를 보고 떨어졌었는데, 멘토님께서 떨어졌어도 감사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더니,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결국 합격했습니다. 5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절박감을 느

끼며 열심히 준비하고 배운 대로 따랐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멘토링 등 을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안된다고, 실패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삼아 다시 수정하면서 점점 나은, 더 준비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지금 다니는 회사는 5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끝에 잡은 직장이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태도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일도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갈 당시,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시점이라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직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워야 할 건 많고 매 번 바뀌는 회사의 상황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 행정 보조(Office Admin Assistant) 역할로 사무실 직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복사, 컷팅부터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준비, 데이터 인풋 등등 기본적인 보조자로서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담당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장기간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입사 후 2개월 만에 많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급여 관리, 오리엔테이션 준비, 퇴사, 승진, 새로운 직원 트레이닝, 여러 법적 규제 확인 등 인사 관련 일들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탈진(burn out)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정



신없는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나가니 지금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회사에서 좋게 봐주었는지,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Assistant가 아니라 HR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승진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저는 주위에 캐나다인 친구가 거의 없었고, 캐나다 회사에서 일해 본 적도 없었기에 취업에 대해 물어볼 곳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 마지막 학기에 한인 회사에서 인턴을 했지만, 인턴 후에 취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에 취업까지 다른 친구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멘토링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멘토님도 한국분이셨지만, 캐나다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시며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면 어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편견 없이 배우고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개월이라는 취직 활동 기간을 보낸 끝에 얻은 직장이고, 그 동안 간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인지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여기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는 말처럼,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것을 알아주고 다 잘 대해주며 도와줘서 지금은 회사에 잘 정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진심은 통합니다. 정말로 취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다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 어디라도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면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상대방에게도 통합니다. 저도 5개월간 고생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가 겪어 봤기에 뻔한 말 같지만 정말 간절함이 길을 열어준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Tips for Success



- 현지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신 정보를 최대한 찾자
-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 정보를 활용하자. 실패하더라도 다시 준비하고 더 연습하고 실천하자



전진민

Parq Vancouver
Casino

07

‘현실’ 안에서 ‘이상’을 쫓는 세계여행자



해외 취업 도전 계기

3년 전,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어 호주로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3가지의 목표(돈, 영어, 여행) 중 하나라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목표를 1년 안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모은 돈으로 1년간 30개국을 일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제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프리다 이빙 강사를 하여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문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상 끝에 내 미래가 뻔히 보였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들과 나눈 대화 중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 영향으로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자연스레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행하며 만난 부부처럼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주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세계여행 중 우연히 만난 친구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는 것을 보고 함께 신청하였다가 (얼떨결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이후 복학을 하여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던 중, 캐나다 K-move 유통물류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던 저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였고, 약 5개월간 해당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영어 수업, 실무 유통물류, 필리핀 어학연수 3개월)을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위니펙(Winnipeg) 지역을 가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비행기 표까지 예약이 다 된 상태에서 캐나다 정부가 관련 이민법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는 밴쿠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밴쿠버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HR 에이전시를 통해 한 유통회사를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저의 영주권 취득을 돋는다는 명분 아래, 캐나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임금체계와 군대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했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할 수 없던 저는 결국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KOTRA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카지노 딜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만난 멘토분의 조언으로 현재 일하는 회사의 면접 정보를 얻게 되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KOTRA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했던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① **Language conversation meet up 참여 :** KOTRA 첫 멘토링 간담회 때, 모든 멘토님들께서 좋은 인간관계와 적극성의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야 하므로 meet up 모임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저의 멘토님께서는 English conversation 주최자이셔서 감사하게도 저는 무료 6개월 정기회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주 토요일 시간이 될 때마다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과거에 카지노에서 일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캐나다 카지노 환경 및 근무 여건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② **LinkedIn profile 만들어서 업데이트 :** 저는 학교 측에서 소개해준 일을 곧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캐나다 구직사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멘토링 때 괜찮은 현지 회사들이 구인 중이라는 취업사이트 LinkedIn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미션은 아이디를 만들고 프로

필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면서 저의 경력을 정리하고 이력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③ **이력서와 자기소개서(Cover letter) 만들기** : 호주 워킹 휴리데이를 할 때 작성한 어설픈 이력서 외에 영문이력서를 제대로 작성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멘토님께서 미션을 내주셨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첫 영문 이력서에는 제가 했던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2년 간의 세계 일주와 3개월간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직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경험들까지 모두 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님께서 직무와 연관된 것 위주로 작성하라는 조언을 해주시며, 본인의 이력서를 참고 용으로 공유해주신 덕분에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력서에 자주 쓰이는 동작동사(action verb) 모음 파일은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④ **1분 엘리베이터 스피치(Elevator speech) 만들기** : 면접을 보러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1분간 면접관일지 모를 사람에게 나를 어필할 것을 영어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카지노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 면접관과 small talk 시 1분 스피치(speech) 준비한 걸 사용해서 시작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KOTRA 멘토–멘티 간 첫 간담회 때 모든 멘토분들이 가장 강조했던 말이 적극성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찾아가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로 이직을 생각할 때 저의 담당 멘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멘토님이 운영하는 Meet up 모임 회원 중에 제가 일하고 싶은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 관련된 질문과 알아야 할 팁(tip)을 멘토님께 물었습니다. 멘토님은 전쟁을 나갈 때 적이 어떤 무기를 가졌고,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면 정말 쉽듯이 면접도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멘토님은 기업의 예상질문 리스트 및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접 팁을 전수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예상 질문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블랙잭 게임 계산법 및 칩 계산법을 미리 숙지하고 가서 덜 긴장했습니다. 면접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저였지만 멘토님을 통해 알게 된 면접 관련 팁을 통해서 면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이 끝날 때쯤에 바로 업무에 대한 교육 세부사항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질문이 저의 최고의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현재 저는 밴쿠버 도심에 있는 Parq Vancouver Casino의 딜러(dealer)로 근무 중입니다. 카지노의 게임(운용 가능한 게임 블랙잭, 바카라, 포커)을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카지노 딜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캐나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적응이 안 되었던 부분은 상하 직원 간의 수평적인 분위기입니다. 가령, 카지노에 손님이 많아 추가 근무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매니저들이 와서 정중하게 제 의사를 물습니다. 제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추가 근무를 거절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 줍니다. 한 번은 제가 게임 진행을 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저와 매니저의 휴식 시간이 되어 휴게 공간에서 실수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을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일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휴식 시간에는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직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관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긴장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초반에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겨 테이블 관리자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때마다 ‘직장 상사’라는 것에 긴장하여서 쉬운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여 억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저의 테이블 관리자가 저에게 “말을 해야 너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모두 너의 말을 귀 기울여 줄 것이다. 걱정 하지마”라고 조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일을 한 지 9개월이 된 시점에는 상관 앞에서 의사를 표현할 때 긴장하는 것 때문에 말하지 못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밴쿠버 생활의 애로 사항 중 하나는 물가보다 기본급여가 낮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곳을 왔을 때 호주와 급여가 비슷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팁을 받는 서비스직이나 전문직을 하지 않는 이상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시급과 팁을 따로 받아 월 3,000달러 이상의 돈을 벌고 있음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비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생활 물가가 한국보다 2.5배 이상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의무적인 팁 문화가 있고, 모든 재화를 구매할 때 추가로 5~12%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면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요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요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싼 재료들을 사려고 인터넷 전단, 중고장터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내는 도심 지역은 주택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원룸을 구하려고 한다면 약 80만 원 이상의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원룸을 쓰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생활이 굉장히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원룸 임대료의 절반 가격 정도의 덴(옷을 보관하는 창문 없는 작은방) 또는 쉐어룸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지내며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로 사항은 언어입니다.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생활하고 일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손님들과 익숙하지 못한 주제로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못 알아듣고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치과를 갔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접하려고 KOTRA 멘토님께서 추천하신 영어 대화 모임에 자주 참석, 캐나다인 선생님과 주 1회 언어 교환 모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 회화 수업을 들으며 꾸준히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인터넷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 생활에 대해 막연한 환상과 희망만 가진 채 이곳에 도착합니다. 막상 한국을 떠 나오고서야 어설프게 알아본 정보와 달라 당황하고 실망하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해외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왔다가, 심각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근무하는 카자흐 취업 알선을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유학원 사이트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구직을 위해 회사 홈페



이지에 이력서를 냈을 뿐, 어떠한 비용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얻되,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자, 가능하다.”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결국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을 두드린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하시죠!

Tips for Success



- 부끄러움은 순간이다. 일단 질문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인다
- “Thank you, Sorry~” 누구에게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자. 관계에서 중요하다
- 수시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해 기회를 얻자



Europe



유럽





EUROPE





홍민철

E,STYLE Live Marketing
Communications

01

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안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중소기업 규모의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중·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직업과 직종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유연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3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자신을 향한 질문과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었고,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그려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저의 기준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 해외에서의 삶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게 깨달은 점은 서양의 사고방식에 따른 삶의 균형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은 선순환으로 일터에서의 효율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외에 나와 취업을 하여 이러한 환경에서 저의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아일랜드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좋아하고,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저의 디자인이 이야기와 함께 흘러가는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찾게 된 직종이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과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일 수도 있는 서른 살에 처음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에 발을 들였고, 1년 동안 세 편의 영화를 준비하는 경험을 통해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원하던 직종이었기에 매우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부단히 해외 취업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던 중 KOTRA에서 주최하는 K-move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결된 지금의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에 디자이너로서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저는 이력서보단 면접에 대한 고민과 연습에 더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면접 강좌였습



니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시선이 반영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좋은 피드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 면접에서는 제가 면접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좋지 않은 버릇을 누군가가 지적해주거나 고쳐주진 않지만, 이러한 모의 면접은 면접관들뿐 아니라 면접 참가자들도 잘 한 점 및 고쳐야 할 점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면접에 대한 준비도 진행했는데 Meet up과 같은 언어 교환 모임을 새로 만들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제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당시 살던 집 근처에 그러한 모임이 없었던 터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임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모임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제가 원하는 상태의 언어 교환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의 참가자 중 초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미국인에게 부탁하여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면접관처럼 물어봐 주었고, 저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던 것이 실제 면접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답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접 준비과정 중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K-move 프로그램은 저에게 해외 취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가뭄의 단비' 같은 것 이었습니다. K-move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회사 중에서 관심 직종 위주로 검색한 결과 현 회사를 찾아 지원하였고,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코엑스에서 이뤄진 현장 면접부터 스카이프로 진행된 두 번의 실무자 면접, 회사 대표와의 최종 면접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특이한 점은 면접관들의 질문위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면접과는 다르

게, 제가 지원했던 회사의 면접관들은 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면접관들의 데생 스케치도 하였고, 음악에 관심 있다고 하였을 때는 한 소절의 노래도 불렀고, 스카이프 면접 시에는 기타를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면접관들은 저의 살아온 순간들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모든 면접의 단계마다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하였고, 최대한 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끝에 합격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제가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저의 성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저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 시간을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취업을 위한 공식에는 영어 실력과 자격증 및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심도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었던 당시, 저의 고민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성향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한 적이 없었기에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저의 행동과 말은 패턴화되어 있었고, 늘 알던 사람들을 만날 때의 저는 프로그램화된 것 같이 동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일랜드에서 살아보기로 했고, 그곳에서 경험해보



지 못한 새로운 순간에 나오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 위치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한 달여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떤 직업이 저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사회구성원으로만 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그 실천의 일환으로 제가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을 한다고 하였을 때 주위에서는 힘든 일을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답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꽤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도출한 답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그 흐름을 이어 해외 취업까지도 의지를 갖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울림에 대한 심사숙고와 경험에서 배운 깨달음이 현재의 이벤트 마케팅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큰 요소였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자신감, 도전 의식이 저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독일 땅을 밟아 본 적도 없는 저는 현지에 사는 단 한 명의 지인도 없이 홀로 회사만 믿고 독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훈련소에 다시 입대한 것처럼 긴장되었고, 모든 것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새로운 환경

이듯, 저 또한 그들에게 새로울 테니 어색함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누군가 말했듯이 저는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함과 친절함 그리고 진실함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동료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고 나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쉽게 잊을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여 사내 인테리어, 브랜딩, 사내 이벤트 디자인 요소들이 모두 저의 손을 거쳐 제작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탄생한 디자인 결과물로 인해 회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동료들을 위한 편리함과 즐거움의 요소가 되어 직원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태도와 디자이너로서 직무에 집중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입사 후 적응 시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지금의 회사는 다국적 사람들이 모인 인터내셔널 기업이라 기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늘 직면했던 문제는 독일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2외국어가 독일어였던 터라 정말 기본적인 것은 기억이 났지만, 저에게 필요한 건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언어 습득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고 집을 구하거나 취업비자를 신



청하는 과정에 영어가 당연히 통용되리라고 믿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되 돌아간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독일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길에 보이는 모든 광고나 간판에 있는 독일어를 적어 단어장을 만들었고, 독일인 동료에게 자연스레 물어보면서 배워나갔습니다. 정착을 위한 문서 관련된 업무는 지금 회사 동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감사의 표시로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선물로 보답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호박 식혜를 만들어 회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 감기약이 딱히 없는 독일에서 필요할 것 같은 꿀 유자차를 담가 다 같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정착하는 시기에 생기는 또 한 가지의 애로사항은 소수의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삶의 무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업 문화는 업무와 개인의 시간을 철저히 분리해 생각하고, 퇴근 이후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길 독려합니다.

정착 초반에는 금전적 상황이나 생활 정보와 같은 면에서는 제한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기에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차례차례 전자피아노와 스케이트보드를 구매하여 저의 자유 시간을 가득 채워 줄 취미생활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이 취미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만 들어져 초반 정착의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회사에 취업이 되고 나서 바로 예정하였던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예식 후 일주일 후에 우선 저 혼자 독일로 와서 정착할 기반을 다졌고, 아내는 9개월 이후 이곳에 와서 저와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통해 저는 심적으로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

고, 기혼자를 위해 독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감면과 지원금의 혜택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상황에 의연하고 단단하게 대처할 힘도 생기게 되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에 대한 꿈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종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하고, 해외 취업의 필수 요소인 영어 및 외국어에 대한 능력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딪혀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에서 얻게 된 배움은 정말 좋은 원동력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하고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거나 그려보시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발전시키면서 진정 좋아하는 것인지 자문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적은 단어들과 그림을 연결해보며 내가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직업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울림이었으면 합니



다. 그 울림의 메시지대로 행동하신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Tips for Success



- 내적으로 깊은 대화를 선행하고, 그에 따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할 것
- 심층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솔직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것
- 부지런히 영어 실력 쌓기



Middle East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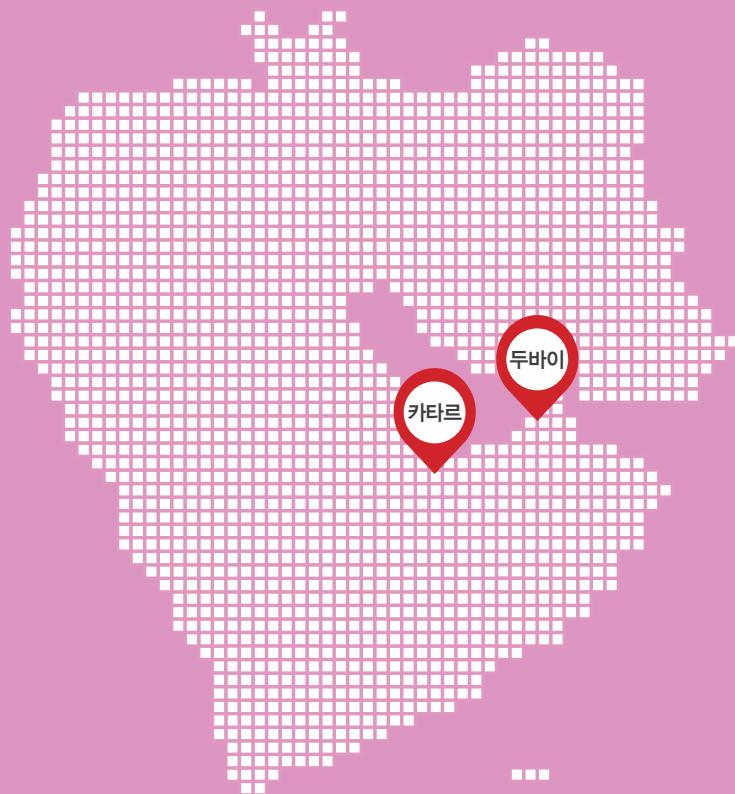
두바이 박현성 | KBS 한국방송 두바이 지국 203

여유진 | SKME 212

카타르 구재훈 | 리츠 칼튼 225



MIDDLE EAST



박현성

KBS 한국방송
두바이 지국

01

해외 취업을 향해 내딛던 소중한 한걸음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일 년 전, 두바이에서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던 때가 아직까지 잊하지 않습니다. 매일 월드잡플러스와 LinkedIn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채용 공고를 눈여겨보며 ‘두바이에서 더 머물 순 없을까?’, ‘내가 다른 직종을 택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 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KOTRA 두바이 K-move 센터에 찾아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상담도 받으며 제가 원하는 직종의 채용공고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원하는 기업, 직종의 채용공고가 없었고, 결국 정들었던 두바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바이를 떠나던 날, 귀국 행 비행기에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취업하기 3년 전, 저는 한국에서 방

송국이나 뉴스를 촬영하는 업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시절, 한국정책방송원에서 뉴스를 촬영하는 업무를 해했는데, 처음 제가 촬영한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보도 영상 하단에 나온 제 이름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더 큰 세상에 나가, 더 많은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직접 촬영하고 싶다는 목표, 특히 해외에 나가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세상 곳곳의 뉴스를 보며 정보를 얻을 땐, 정말로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세상이란 무대는 정말 넓고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 있는 특파원들이 전하는 영상을 보면, ‘만일 저런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취업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 꿈을 잠시 접고 한국에서 우선 취직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한 방송사 공채 시험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 한 곳의 채용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KBS 두바이 지국’에서 뉴스 촬영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KBS 방송아카데미를 찾았고, 그곳에서 두바이 지국에 입사하면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인도까지 관할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며 촬영 영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영어 사용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해외 무대를 경험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온 기회 덕분에 해외 취업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국내에서 방송사 공채 시험을 준비할 때는 KBS 방송아카데미에 등록하여 방송 카메라 수업을 듣고, 현직 선배님들의 촬영 노하우를 배우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KBS 두바이 지국 채용공고를 본 후 이력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방송 관련 해외 취업 사례를 찾아봤지만, 쉽게 정보를 얻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외 취업 사례를 찾아 이력서를 쓰고, 검토와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도 모자란 데다, 해외 체류 경험 자체가 없었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력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의 이력서를 찾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조차 몰랐고, 중동지역이라는 조건도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외 취업 후 기와 준비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KOTRA 중동 본부의 웹페이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취업 정보는 물론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입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국내 방송 업계에서 쌓은 경력을 이력서에 적어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및 그동안 제작했던 영상을 모두 KBS 두바이 지국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두바이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면접 전화를 기다렸던 저는 전화를 받고 떨리

는 목소리로 솔직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을 면접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뉴스 촬영과 편집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한 결과, 저의 꿈의 무대인 해외에서의 촬영기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의 무대였던 두바이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현지 생활도 잘 적응하고, 업무도 잘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끝나갈 때 즈음, 두바이에 좀 더 머물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대학교 전공인 광고·홍보 분야를 밑천 삼아 두바이에서 이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KOTRA 두바이 K-move 센터에서 현지 이직 정보를 얻어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바이에서의 생활을 아쉽지만 정리하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 한 번 더 어디든 해외로 나가보자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BS 두바이 지국에서의 생활은 끝났지만, 2년간의 전문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것이 저를 영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새로이 세운 목표는 더욱 더 넓은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영국의 BBC 방송국의 뉴스 촬영 기자였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단순하게도 이런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취업 준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길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목표했던 BBC 방송사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의 삶은 당장 그 다음 날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부담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두바이에서의 일상과 좋은 기억이 떠올라 그리웠습니다.

저는 결국 월드잡플러스와 다른 여러 취업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며 당시금 두바이에 돌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두바이로 돌아갈 기회를 기다리던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KBS 두바이 지국'에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즉시, 저는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KBS 두바이 지국 퇴직 후, 1년간의 공백 기간에 했던 업무와 그동안의 경력 사항을 이력서에 채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새기게 된 각오와 간절함과 절실함, 업무수행에 있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확신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0월에 저는 다시 KBS 두바이 지국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3년 전, 해외로 취업을 준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준비 과정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와는 시작부터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췄고, 중동지역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에는 아랍지역 관련 전공자들도 많았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와 계기, 준비한 시간이 남들과는 달랐지만, 저는 촬영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이루고 싶은 꿈을 일찍부터 찾았고,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방송사, 뉴스 촬영 기자라는 언론인이

되기 위한 꿈을 품었고,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뉴스들을 취재하며 생긴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촬영은 물론, 잘 적응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당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그동안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남보다 늦게 재미를 붙인 사람이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해외라는 낯선 무대를 경험하고 재미를 붙이면서 두바이를 떠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며 얻은 무수한 경험과 시간 속에서 얻은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을 좇아가며 부족했던 영어 실력도 향상하고, 저 자신을 다듬으며 기다렸던 결과 다시금 두바이로의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저는 두바이에서 특파원과 더불어 중동지역에 관한 사건사고에 대해 영상으로 취재하는 뉴스촬영 일을 맡고 있습니다.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및 인도지역의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담당지역에 대한 주요 소식들과 현황들에 대해선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놓으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론 긴장감 넘치는 현장 속에서 촬영해야 하는 취재상황도 있지만, 그동안 맡은 일은 잘 마무리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2015년 10월, KBS 두 바이 지국에 첫 입사 후, 처음으로 뉴스 보도를 위한 촬영을 했을 때는 어찌나 손을 벌벌 떨어가며 촬영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몇 개월 동안은 떨리는 손과 마음을 부여잡으며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아찔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재입사하게 된 지금의 저는, 앞으로의 계약 기간에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생각하고, 나아가 장래 모습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첫 입사 때와는 달리 조금 더 보완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해 저 자신을 증명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관찰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촬영과 뉴스 영상 전달을 위해 저를 더욱더 단련하고 싶습니다. 촬영 기자라는 직업과 꿈을 위해 한 길로만 달려온 소중한 시간을 달려온 만큼, 장래에도 촬영 기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시 얻은 두바이에서의 시간을 부끄러움 없이 보내며, 최선을 다해 성장하려 합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첫 해외 취업 당시 저는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현지 생활 정보와 업무에 관해서 알아보고 준비했던 기간도 누구보다 짧았습니다. 두바이에 도착 했을 땐, 모두 다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두바이에서 손을 벌벌 떨며 찍었던 첫 촬영 내용은 '중동의 허브, 아랍에미리트에서 꿈 키우는 한국인 젊은 청년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KOTRA 두바이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아부다비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때, 그들의 삶과 두바이에 온 목표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만, 불평하던 저의 모습과 두바이 땅을 처음 밟을 때의 다짐들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해외에 나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과 밀고 당기는 심리 싸움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하며 외국인 앞에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소통이 그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 한국인 친구를 사귈 기회도 찾고, 생활 정보를 얻어 두바이에서의 삶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학원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언어를 배우며 조금 더 아랍문화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도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몸소 부딪쳐보고 경험해보며 제 삶을 위해서도, 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사례로 남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다른 국가로의 취업을 생각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내 취업만을 목표로 했기에 해외 취업은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꿈으로만 꿀 수 있던 일들이라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돌려 해외 취업의 길을 생각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 정보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취업의 목표와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붙잡기까지의 도전해보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한계를 정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계를 넘어 뛰어넘어 보자는 마음과 이로써 비롯된 경험이 더욱더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한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계를 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외 취업에 관한 정보와 목표하는 나라에 대해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준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Tips for Success

-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던 용기
-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 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태도

여유진

SKME

02

중동에서 찾은 오아시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어릴 적부터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것보다는 집에서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술(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과 관련된 취업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늘 한국에서 취업이라는 큰 관문을 생각했을 때 겁이 많이 났고, 이대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향적인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자 첫 해외 배낭여행을 결정하여 학기 중 열심히 스스로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도착한 인도는 매 순간 낯선 사람들의 시선, 낯선 환경 그리고 낯선 음식들뿐이었습니다. 난관도 많았지만 모든 일정을 혼자 힘으로 소화해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도전’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깊



이 배웠습니다. 뜻깊은 한 달간의 인도 여행을 통해 제 성격과 태도는 점차 외향적으로 변해갔고, 제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축하면서 낯선 나라로의 여행을 즐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스스로 영어를 듣고 말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졸업 시기가 되자, 디자인 전공을 살려 한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상상했던 직장의 생활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문화와 학연, 지역으로 병든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특징의 모서리가 없어지고, 남들과 똑같은 직사각형이 되는 느낌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속의 해외 취업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직장생활을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이 두렵지 않았던 저에게 해외 취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더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협업하는 것을 원했으며, 스펙이나 성과 중심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던 중 KOTRA의 K-move라는 정부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구인, 구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회사를 보던 중, 저에게는 낯설지만 도전하고 싶었던 나라인 UAE(두바이)에서 디자이너를 뽑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회사소개서를 보고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UAE(두바이)에 대한 조사와 제가 회사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회사에

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한국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긴장감을 풀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회사 대표님 두 분과 직접 하게 되었는데, 제 도전기와 해외 취업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한국에서 면접 봤었던 것과 달리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질문이 아닌 저라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약 한 달 뒤, UAE 입국 날짜를 정하고 바쁘게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외 취업이라 현지 비자(VISA), 숙식, 의료보험, 각종 지원 등 궁금한 점들이 많았으나, 매 순간 회사에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그 외 정보들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얻었습니다. 또, KOTRA와 함께하는 중동 취업(네이버 카페)을 통해 유익한 정보도 사전에 많이 얻게 되어 두바이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드잡플러스, LinkedIn, Indeed 등 해외 취업사이트 리스트를 정리해서 각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여러 사이트 중 저에게 맞고 잘 구성이 되어 있던 월드잡플러스를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 제 전공과 맞는 직업군이 올라오는 뉴스레터를 데일리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센터(K-Move센터)와 월드잡플러스는 청년들에게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를 주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봉과 보험의 유무, 주거 형태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사전에 등록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 구직자들을 위한 박람회, 세미나를 열어 저 같은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해외 취업 경로에 대해 막막함을 느낄 때 맨 처음 찾아간 곳이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센터였습니다. 상담 시간을 사전에 잡을 수 있으며, 방문하여 평소 관심을 가지던 나라에 대해 취업률, 전망 받는 직업, 비자 취득 방법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직원께서 제게 그 나라에 대한 책자를 주시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꼭 전화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려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월드잡플러스를 잘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군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이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셔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작성은 그동안 제가 자라온 배경과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의 첫 해외여행 도전기와 그 이후 저의 달라진 점이었기에 이 부분을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또, 2년간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 등 업무적인 저의 역량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그에 관련한 자격증과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었기에 인사 담당자에게 이를 먼저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직무와 관련된 직무경험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간 의류회사 브랜드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하나를 어떤 디자인으로 마케팅을 하여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

고 있었습니다. 또, 타깃마다 다른 디자인이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 조사를 하여 특성화된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력서에 기술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디자인의 디테일에 따라 수요가 좌우된다는 교훈을 얻었던 프로젝트의 내용도 기재하였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며, 그 이후에 나의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어떤 프로젝트에 임했을 때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라는 순서로 자세한 예시를 들어 기술하는 것이 구직자도 쓰기 편하고, 인사담당자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등등 꿈꼼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사는 UAE 내 호텔 & 리조트, 워터파크, 스포츠 숍 등에 워터스포츠(Watersport) 제품들은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싱하고 있었으며, 워터스포츠 관련 제품 구성이 다양했습니다. 그 중, 제가 맡을 일은 자체 브랜드로 론칭할 수영복, 래쉬가드 등의 디자인이었기에, 사전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수영복 제품들의 디자인을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며, 면접에 이런 부분을 사전 학습한 노력을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 회사에서 요청한 디자인 관련 업무 수행 과제에서는 플립플롭(Flip Flop) 디자인으로 남성용 스트라이프와 여성용 플로랄 패턴을 만들어 수행했고, 회사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이 된 이후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무에 적응하고자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간단한 디자인 업무는 도우면서 출국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국내 취업에서는 스펙이 단연 중요하지만, 해외 취업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취업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에서 많은 고배를 마셨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말자는 마인드로 매사에 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왔는지,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가진 능력이 어떤지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았거나 그 나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해외 취업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다녀보고 경험한 나라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경험치는 다를 수 있으나 봉사활동, 워킹홀리데이 등 경험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역시 ‘디자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했고, 면접을 통해 작성한 내용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말씀드렸기에 남은 것은 업무 역량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했고 맡은 업무는 무

엇이며 작품 하나 당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전문가답게 처리하는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지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포트폴리오에서도 하나의 국한된 스타일이 아닌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때론, 업무에서는 양보 할 수 없는 부분과 고집스럽게 지키는 저만의 성격도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대신 그만큼 열정적이며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업무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협업의 중요성과 과정 등 저 역시 맞춰가야 하는 부분과 그 과정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두바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첫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곧바로 업무를 주진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아이템들을 파악하고, 고객사(호텔, 워터파크 등) 시설 둘러보기, 미팅에 합석하는 등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돋는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업무외적으로는 필요한 물품 구입, 집구하기, 현지 생활 정보 얻기 등의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틈틈이 디자인 관련 업무도 하면서 다행히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했고, 제가 직접 현지 부동산 사이트를 보며 퇴근 후 집을 보러 다니며 원하는 위치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에 온 또래 외국인 친구들도 생기는 등 생활하는 데에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도 저를 잘 챙겨주고 회사 업무 관련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희 회사는 UAE 내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실내 스키장, 스포츠 숍 등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싱해 납품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이 현지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납품되어 판매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가 관할하고 있는 제품의 구입을 희망할 때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자체 신규 브랜드 수영복, 래시가드 런칭을 위한 디자인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점은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입니다. 회사 내 모든 업무 과정이 다 같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서 일한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수렴해주는 회사를 만난 것을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적응하는 단계임을 배려해주는 회사 덕분에 이것저것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새로운 것들이 많아 하루하루 여행을 온 기분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평일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없어 퇴근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가까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암벽등반, 자전거 타기 등 지금 계절에 즐기기 좋은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 관련 전시회 관람이나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 관람 등 관광객 모드로 여가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이 길

고 찾은 야근에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거의 못 했지만, 지금은 워라밸 생활을 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집세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아직 초기라 급여에 관해서는 현지 물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며 지리도 익히고 현지 생활에 완벽 적응을 위해 나름대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현지에 와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반 3주의 기간은 회사에서 마련해 준 호텔 아파트먼트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 내 제가 스스로 거주할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회사 직원들의 경험담과 인터넷 정보(dubizzle.com)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퇴근 후 부동산에 연락하여 원하던 위치에 있는 집들을 보러 다니면서 같은 사정으로 집을 구하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알게 되어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렇게 이곳저곳 둘러보고 지낼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여 여성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 생활하기 편리한 곳,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게 되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집 전체를 빌리지 않고, 방만 빌리고 거실은 공유하는 형태의 거주공간을 구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 있으나 방과 그에 딸린 화장실은 온전히 제 공간이라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교통수단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되어 있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지하철과 버스가 있지만 한국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보행자를 위한 도로와 건널목이 많이 없어 도보로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착 초반에는 미리 준비해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주말 동안 다녀봤으나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고 주차에도 어려움이 많아 좀 더 지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후 현지 지리를 잘 알게 된다면 차량 공유하여 이용하는 앱 (udrive.ae)이나 중고차를 구매해 대중교통으로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애로사항은 다소 느리게 돌아가는 현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늘 빨리빨리 하는 문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늘 여유가 없이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에 적응이 되어 있던 터라

현지에서의 다소 느리게 돌아가는 일상과 업무처리 방식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국적의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어느덧 현지의 느리게 돌아가는 일상이 결국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도 몇 번의 음주 회식과 팀 빌딩(단체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금세 편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직원들은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K-pop) 등의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하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근무에 앞서 업무의 기본이 되는 외국어(영어)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영어를 오랜 기간 배웠으나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가 적었고, 몇 번의 해외 배낭여행 경험으로 자신감은 있었으나 업무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다르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와서 영어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외국인 친구에게 말했을 때, 친구는 저를 격려하며 “두바이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인 사람들이라 영어 발음도 조금씩 다르고 문법도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차근차근 잘 말하면 말이 느려도 다 소통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 온 사람들 말고 다 영어라는 제2외국어로 서로 소통하면 지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만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고 업무 중 영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외국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독립성과 자립성인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거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외 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바이에 온 후 “그곳에 어떻게 갔나, 가려면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지인을 통하여 많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그전에 몰랐던 정보를 얻고 그 이후, 해외 취업에 대한 갈망과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특별하지 않아서, 영어를 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등등 많은 이유로 자신감을 갖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20대였습니다. 더욱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이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할 때 누구보다 더 많은 현지 생활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업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 이후 해외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 생활수준은 꼭 찾아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리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에 맞는 현지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즐겁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많은 해외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해외 취업이 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보니 제가 몰랐던 다른 세상의 모습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시점에 ‘왜 나

는 한국 취업만을 생각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나?'라는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좋아했던 여행을 좀 더 해보거나, 제가 좋아했던 디자인 관련 일에 더 투자했더라면 저는 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넓은 세상에서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Tips for Success

-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자
-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모색하자



구재훈

리츠 칼튼

03

JOB보단 커리어!!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저는 졸업을 앞두고 거의 1년 가까이 취업 준비를 했는데, 결국 원하는 곳에서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인·적성 시험과 같은 필기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회를 얻기에 힘들겠다는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교환학생 시절부터 즐겨 찾기를 해놓았던 KOTRA SNS를 통해서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때 교환학생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 해외 문화를 많이 접해왔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어떤 기회가 있나 둘러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호텔(리츠 칼튼)과 인연이 달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인연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해외 취업 박람회에 등록한 이후에 참가 기업 목록을 보면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호텔 분야와 마케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 기업, 직무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먼 타지의 기업 중에서 제게 알맞은 기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개 기업에서 박람회 당일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해외 기업이기에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얻은 영문 자료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사실 박람회 당일의 면접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3개 기업의 면접 시간을 보니 모두 1인당 10분 정도의 시간만 배정이 된 것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관련 기업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 하자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 중 리츠 칼튼 호텔의 면접 때는 미리 공부해 갔던 ‘황금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비록 관광·호텔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브랜드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리츠 칼튼 호텔에서 다시 연락



이 왔고, 이번엔 스카이프를 통해 리츠 칼튼 도하의 매니저와 화상면접을 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브랜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리츠 칼튼 브랜드의 핵심가치(코어 밸류·CORE VALUE)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연결한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취업이 된 이후에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경험과 성경을 예로 들어 어떻게 잘하겠다는 사례 중심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관광 · 호텔업을 전공한 것이 아니었기에 완전히 처음부터 배운다는 느낌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작은 파란색 수첩이 제 상징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수첩에 적어가며 업무를 배우려 했고, 덕분에 작은 디테일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응한 이후에도 수첩

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 덕분에 다양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이후에 같은 브랜드의 기준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前) 매니저의 소개로 베이징 지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2년 근무한 이후에 서비스 운영에서 배운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인사과 교육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첫 직장이었던 리츠 칼튼 도하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현재는 리츠 칼튼 도하를 포함한 3개 호텔의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대학생 때 교환학생과 인턴십을 통해서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지만, 중동은 처음이라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착 초기엔 교통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려던 중에 호텔에서 만난 어떤 고객님에게서 “이런 경험을 여기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차이’를 불편함이 아니라 색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후에 베이징 지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가서 경험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아직 제안에도 쉽게 이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웠고, 호텔에 취업하기 전에는 호텔 로비에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호텔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일이나 원하는 삶이 있다면, 당장은 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부딪혀 보고 이후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어떤 커리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성공이라는 당장의 과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와 삶’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Tips for Success



- 자세한 조사를 통해 회사와 자신의 연결점을 찾아서 어필
-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유연한 사고(open minded)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
- 좋은 인상을 남기면 기회가 온다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중남미



멕시코시티 | 박노현 | Lumi People

233

상파울루 | 이유진 | STI NORLAND

24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박노현

Lumi People

01

중남미 여행자, 멕시코 헤드헌터가 되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주위에서 왜 지구 반대편 멕시코까지 가서 일하게 됐냐고,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불편하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여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라고 답변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멕시코가 한국에서 가장 멀어서(그만큼 문화적 차이가 크고), 한참 발전 중이라는(그만큼 기회가 많아서) 그 가능성 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공군 장교로 다소 긴 군 복무를 마치며 퇴직금도 있겠다. 취업 전에 마지막으로 마추픽추나 한번 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떠난 남미여행은 애초의 계획을 훌쩍 넘어 1년이 넘어갈 때까지 이어졌고,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한국 사회(군대+유교권)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라틴 사회는 처음엔 강렬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가왔고, 이후에는 상호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Latin Culture in Business’, ‘Cultural Code’ 등의 키워드로 구글링하며 정보를 수집하면서 점차 ‘Cultural 인사기법(관리)’쪽으로 제가 원하는 직무를 좁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및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로 타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국내든 해외 취업이든 결국 구인정보, 이력서, 면접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구인정보의 경우 대부분 이용하는 리크루트, 사람인, 인사이트 등에 간간이 올라오는 해외 구인

공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로 월드잡플러스 및 LinkedIn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일반 취업사이트의 경우 해외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고가 많지 않은 편인 데 반해, 월드잡플러스는 해외 취업 전용 사이트이기에 활용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곳은 2017 KOTRA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남미 취업설명회에서였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현지 진출 기업 인사담당자 및 현지 헤드헌터들에게서 최신 채용동향 정보와 구인공고에는 실리지 않은 정보(현지 동 업계 평균 급여,



실제 모집인원 등)를 얻을 수 있어 필터링 및 지원 여부 결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력서의 경우 국문, 영문을 준비했는데 최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핵심만 나열했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이나 경력은 과감히 빼고 한 눈에 파악되도록 작성했으며, 특히 영문이력서는 1장 내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헤드헌팅 업체에 제출하여 첨삭 및 컨설팅을 받았으며 '기본 이력서' 하나를 최종 작성 후 실제 지원기업에 따라 조금씩 수정(지원분야 및 업종에 따라 자격증, 경력 포함, 불포함 여부)하여 최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두 군데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추천받은 2개 기업, 월드잡플러스 2개, 취업박람회 1개, LinkedIn 1개, 총 6개 기업에 지원했고, 모두 다섯 군데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은 주로 외국어(영어·스페인어) 및 지원동기 그리고 직무 관련 지식에 관한 질문들로 이뤄졌고, 진행은 대동소이했습니다. 2~3일 간격으로 면접을 진행하던 중 첫 번째 면접을 주선한 헤드헌팅 업체에서 면접 제의가 와 10분의 짧은 면접 후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반나절 고민 후 남은 면접을 취소하고 입사 제안 시 받은 항공권으로 멕시코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헤드헌팅 업체에서 헤드헌터로 직무에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먼저 수많은 구인공고 중 자신에게 적합한 공고만 추리는 필터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월드잡플러스나 LinkedIn 사이트에 올라

와 있는 중남미 관련된 대부분의 공고를 살펴보곤 했습니다. 지역도 파나마,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선택지를 넓게 검색하다 보니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겠다 싶어 먼저 지역을 멕시코로 한정하고 원하는 직무 관련 공고만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15개 정도의 공고만을 추렸고, 공고를 올린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업체의 경우 주로 구글링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진출업체의 경우 본사 홈페이지나 홍보부서에 전화를 걸어 진출법인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원 안 할’, ‘보통’, ‘꼭 지원하고 싶은’, 세 가지 분류로 지원 우선순위를 나눴고, 차례로 중요성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여 이력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좁혀지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 후, 지원할 업체마다 맞춤식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맞춤식 이력서라고 해서 업체마다 완전히 다른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력서를 바탕으로 업체의 특성(업종, 분야, 규모 등)과 지원직무에 따라 부각할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뺄 이력 사항들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평가 기준과 선호 이력의 경우 해당 인사부서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지에서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현지 헤드헌터들에게 조언을 얻어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H 사의 인사부장은 리더십 및 조직 적응성을 중요시 한다’라는 팁을 듣고 해당 이력서에서 장교경력의 비중을 늘리고, ‘상사 D 인터내셔널 인사과장은 외국어 가능자를 선호한다’라는 팁에 외국어 습득 관련 경험 및 자격증을 이력서 가장 앞줄에 배치하는 등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료로 한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기업의 성향에 맞춰 맞



줌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완성된 요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 내놓느냐와 같습니다. 물론 요리가 너무 훌륭하여 담기는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요리가 상향 평준화된 비슷비슷한 요리임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릇에 차별화를 두는 것 또한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외 취업의 경우 수시채용이 대부분인 만큼 공채와는 달리 이력서를 검토하는 실무 담당자의 성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 모두 스카이프 화상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이력서 내용과 실제 일치하는지, 외국어 역량, 적응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인어 면접의 경우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어휘나 문법보다는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초점을 맞주었습니다. 쉬운 단어나 문법 위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사 를 분명히 표하는데 목표를 두고 면접을 진행했고, 잘 들리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확인해가며 면접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보유한 스페인어 공인성적보다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후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해외 취업 특성상 외국어는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너무 공인 어학 점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학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면접관들도 파악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본적인 점수 이상만 되면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 및 앞으로의 외국어 습득 가능성은 보려고 면접에서 외국어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후보자의 장기성 및 적응력 평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준비하는 해외 취업의 경우 기업이 부담

하여 후보자를 현지로 데려오고 주거부터 취업비자 지원까지 초기 투자가 크게 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후보자의 적응실패 및 조기 퇴사 리스크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를 후보자가 면접에서 해소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지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적극적인 태도를 면접 내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취업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후보자를 선호할 면접관은 전무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해외 취업 목표 의식과 동기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멕시코 현지 HR 컨설팅·헤드헌팅 업체로, 소수의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대다수의 현지 멕시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1년 3개월 정도 되었으며, 주 업무는 고객 대응 및 HR 컨설팅 그리고 외국인(주로 한국인) 헤드헌팅입니다. 고객사가 대부분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지만, 회사 내부구조는 현지인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활에 적응하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기업문화 차이를 매일 경험하며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서 업무의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외 기타 전반적인 생활은 한국에서 접하는 언론매체에서의 멕시코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및 치안은 한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



지만, 오히려 문화적 즐길 거리 및 삶의 여유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부분을 예로 들자면, 보통 한국에서 멕시코로 취업해서 오는 경우 한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멕시코 내에서 상위층의 급여 수준입니다. 이곳 물가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라틴 사람들은 최고의 친구이지만, 최악의 직장동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친구로서 유쾌하고 항상 친절한 라틴사람들이 직장동료로 만나면 태업과 무책임 그리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과 핑계를 대서 일의 진행이 더뎌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라틴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평균의 한국인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꾫꼿이 수행하는 라틴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전자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고충을 두고 그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듯이, 해외 취업에서도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적, 현지 정보에서 절대적인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의 경우 그 어려움이 배가 되고, 그 문화권이 라틴문화권이고 본인이 유교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멕시코에서 일을 시작할 때 현지 멕시코 직원들의 업무방식에

분노의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한번 요청한 사항은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았고, 약속한 날짜와 시간은 가끔만 지켜졌으며, 같은 사건을 두고 개개인이 상반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되어 이미 업무는 저 멀리 가버리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화만 내고 ‘내 방식이 맞다’라고 계속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제 방식이 맞다 치더라도, 결국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고 현지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규칙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나서는 멕시코 현지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업무대응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논리로 접근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한번 요청할 게 아니라 미리 두세 번 더 요청하고, 날짜와 시간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약속을 잡거나 기한을 여유롭게 정하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감정에 따라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니 이전보다 현지직원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현지에서 적응하며 겪은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극복 해냈다고 말하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직 한참 현재 진행 중이며, 현지 직원들과 새로운 갈등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그들의 논리와 방식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단(실제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손님으로 온 입장에서 현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와 방식으로 접근하여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나가고, 또한 제 방식이 여기에선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결국 현지인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해외 취업을 두고 너무 '해외'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현지인과 직장생활을 하며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찾았는데 해외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목표도 더욱 분명해지고, 취업 이후에도 해외에서 만족도 높은 직장생활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Tips for Success



- 면접 - 적극성, 장기성, 의사소통역량 어필
- 구인정보 - 선택과 집중, 필터링, 우선순위 나열
- 이력서 - 기업특성별 맞춤식 이력서

이유진

STI NORLAND

02

어디서든 기회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



해외 취업 도전 계기

어릴 적부터 한 번쯤은 외국에서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던 저는 29살이 되던 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영어에 대한 장벽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저는 한국에서 해양 미생물 연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해외 취업을 꿈꾸며 꾸준히 월드잡플러스, LinkedIn과 같은 해외 취업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해외 취업 박람회를 다니면서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인 29살이 되었을 때, 어떤 시도나 도전 없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찾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해외로 나가 직접 뛰면서 구직활동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현지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나가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왜 브라질이니?”라고 꼭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과 경쟁을 한다면 언어와 기술력에서 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영어만 할 줄 알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를 가면 어떨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어 능력을 활용한다면 취업했을 때 그 나라의 원어민과 경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 전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이왕 해외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한국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보자’라고 고민한 끝에 상파울루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며, 특히 상파울루는 남미의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많으니 ‘설마 이 큰 땅덩어리에 내 일자리 하나 정도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남미 지원의 보고’라 불리는 만큼 자원이 풍부하고 임업 자원이 세계 산림면적의 10%에 달하는 등 환경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더 매력적인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을 떠올리면 치안이 좋지 않고, 한국보다 후진국이라 살기에 좋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3년 전에 2달간의 남미여행을 통해 브라질을 여행한 적이 있었고, 좋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저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브라질에 가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정착 계획과 저의 해외 취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많이 배우고 꼭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과정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로는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장 신청을 하면 총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6개월의 기한은 저에게 해외 취업이 허용된 한계선 (deadline)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절박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브라질 친구의 도움을 받아 현지의 포르투갈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사설 학원의 경우, 수업 개강 후에도 중간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학원에 다니며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숙소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신청하고 학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취업이든 언어를 습득하든 하나는 꼭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그 이후에는 하숙집(República)에 들어가서 브라질 친구 9명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포르투갈어만 듣고 말하며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넷플릭스(Netflix)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반복 시청하며 생활 언어를 익혔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얘기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직접 활용했습니다.



포르투갈어 어학원에서 만난 전 세계의 친구들을 통해 현지에서만 공유되는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취업 사이트와 인터뷰 방법 등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해외 기업

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경력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브라질 회사나 브라질에 있는 외국계 회사 가운데 환경·에너지 관련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로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에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포르투갈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면접 기회도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영어로 인터뷰했으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주고 포르투갈어로 답변을 적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직원들은 크게 본사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주재원)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현지인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포르ту갈어도 중급이었으므로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브라질까지 큰맘 먹고 와서 우울하게 생활하는 것보다 남은 기간 언어라도 열심히 배우고 최대한 즐기다 가자’라고 다짐하고, 브라질 내에서 8개의 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브라질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에서 생활한 지 4개월 후, 생활비의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파울루의 물가는 한국보다 높게 느껴졌는데 월세, 학원비, 생활비, 여행비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없이도 용돈을 벌 수 있는 개인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외를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는데, 저의 사연을 듣고는 도전 정신에 감탄하며 주변 동료나 엔지니어 회사 지인에게 저를 소개해 주고 구직 정보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저와 한 달 정도 수업한 뒤에 저에게 “이런 열정이면 무엇을 가르쳐도 잘할 것 같다”라며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떨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저의 학생이었던 분이 오늘은 저의 상사가 되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는 취업 사이트나 박람회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기회는 꼭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제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취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곳을 저는 기회로 파악하여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어 또한 한국에서 인기가 없지만, 그 때문에 더욱 희소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80%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가 스페인어 사용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발전한 선진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안정적이겠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현지 인들과 경쟁하며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취업 후에도 업무와 더불어 그 나라 특유의 문화, 언어를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저는 기회가 훨씬 많은 신흥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능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의 노력과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분명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인데 저의 매니저는 27살이며, 구매 부서 매니저는 23살이지만 누구 보다 능력 있고 전문성도 뛰어납니다. 이처럼 성별, 나이, 학벌 등의 제한 없이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키운다면 고속 승진이 가능합니다.

저도 태양광 시스템 기계 및 발전소 설계라는 분야에서 신입으로 입사하여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며 태양광 발전소 관련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현지 정착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브라질 취업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현지 채용으로 취업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비자 종류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고, 특히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되면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보다 업무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만약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재

심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지연될지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최악의 경우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회사와 의논하여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비자 전문 업체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노동계에서는 자국민 채용을 우선시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직무 경력과 브라질에서 맡게 될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비자 승인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석사 과정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회사는 저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회사가 아시아에 진출 할 계획이 있어서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전략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명 서류는 포르투갈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필요한 증명서류(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한국 업체에 인터넷으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의뢰하였고,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는 6개월의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브라질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약 3주 만에 이메일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자 승인 공문이 주한 브라질 대사관 영사관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링크를 통하여 실물 비자를 신청하고 신청서를 뽑아 영사관에 가져가서 실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일단 해외 취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취업 희망 국가에 직접 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달콤한 기회는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전에 외국에서 지내면서 살만한 곳인지 답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로 잠깐 스쳐 가는 것과 일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어서', '한국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보다는 수없이 많은 도시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지,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물음은 결국 좋은 선택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Tips for Success



- 업무는 물론, 현지의 문화, 언어를 계속 배우려는 노력하기
- 자기만의 경쟁력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기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2018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발행인 | 권 평 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9년 0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Copyright ©201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간자료번호 | KOTRA자료 19-005

ISBN 979-11-6097-900-8 (93320)

979-11-6097-901-5 (95320)(PDF)

2018년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 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979-11-6097-900-8 (93320)

979-11-6097-901-5 (95320)(PDF)